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3.08

광명



우리 같이 광명 나들이

1511-999-799-02 | 1511-999-0216 | 문화관광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



쉬엄쉬엄, 원주 치악산 둘레길 걷기 |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전 관람기 | 포항 시원한 맛집 탐방

08

CONTENTS

2023.08

030
테마 여행
원주



가파른 산길을 에둘러 걷는다. 이맘때 강원도 원주 치악산 둘레길은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작은 새와 풀벌레 울음소리마저 싱그럽다. 어둠이 내린 뒤엔 구룡사에 여장을 풀고 산사의 정취도 만끽한다. 말간 여름날이 흘러가고 있다.

환전의 전환 집으로환전!

더 나은 여행을 위한 선택, 전국 배송 환전서비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외화 봉투를 받으세요.



환전 서비스 바로 가기



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업체
(2019-06)

서울세관 환전영업자
등록 업체
(2020-05)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
(2020-12)

보안 인증
PCI DSS 획득
(BBSec/2023-02)

2023.08



인생 최고의 무대에 초대합니다 제8회 파나소닉 고객초청 프로암 대회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품격과 특별한 라운딩을 경험하세요



2019 US여자오픈 우승
이정은6 프로

2011 US여자오픈 우승
2017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유소연 프로

EP-MAK1 (아이보리)

EP-MAK1 (베이지)

EP-MAK1 (블랙)

008

세계 도시 이야기

눈부신 기암절벽과 피오르가 펼쳐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여름을 보낸다.

014

주방 속 여행

프렌치 다이닝 '르오농'의 허진석 셰프는 육수 없이도 농밀한 풍미를 완성한다.

018

맛집 탐방

바다와 맞닿은 도시, 경북 포항에서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잊는다.

048

기차 타고

폭포 위 출렁다리를 누비고, 동굴을 탐험한다. 아이와 경기도 광명으로 소풍을 떠났다.

056

이달의 공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호퍼 전시를 관람했다. 사랑하는 화가 목록이 추가됐다.

064

에디터 자유 여행

서해선 열차 타고 반나절 여행을 즐긴다. 문학과 역사, 연꽃 향기가 흐드러진다.

068

촬영지 여행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해외 콘텐츠가 눈에 띈다. 낮익은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074

문화 돌보기

여름 하면 방학, 방학 하면 할머니 생각. 할머니를 여러 각도로 조명하는 콘텐츠를 모았다.



KORAIL INFORMATION

090

한국철도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제8회 파나소닉 고객초청 프로암 대회

- 기간 : 2023.08.01 - 2023.09.30
- 행사내용 : 안마의자 MAK1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분(50쌍)을 모십니다
- 대회일정 : 대회일정: 2023년10월16일(월) Tee-Off 추후 공지예정
※전일(10월15일 일요일) 하이원 숙박권 및 조식제공
- 장 소 : High1 CC (하이원 CC 강원 정선 소재)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4-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중인프라자 (051)255-0300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남동 | 파나소닉 천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일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인천 5층 (010)5571-53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B1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들어가는 글



“이별이 너무 싫다. 다음에도 여행 갈 거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동생이 꼭 하는 말입니다.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서요.
경기도 광명을 여행하고 인사를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고 동생을 안아 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새 키가 훌쩍 자랐더군요. 아장아장 걷던 게 엇그제 같은데...
눈물을 닦던 동생이 제게 먼저 손 인사를 건넸어요.
그제야 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함께 보낸 오늘은 반복되지 않으니,
동생에게 무척이나 소중한다는 걸요.
여전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지만
우리는 '또 여행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동생처럼 여행의 순간을 오래도록 곱씹으려고 합니다.
어딜 향해 떠나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소중한 여행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KTX

바로 지금, 여행
AUGUST 2023

2023년 8월호 제20권 제8호 통권 제230호
2023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서울에서 원주, 50분

[Long distance]

롱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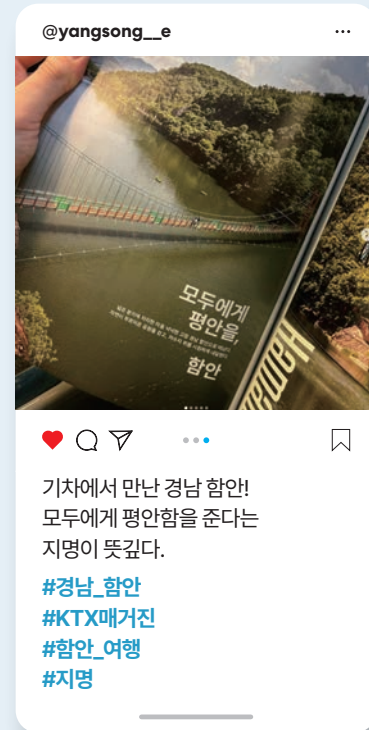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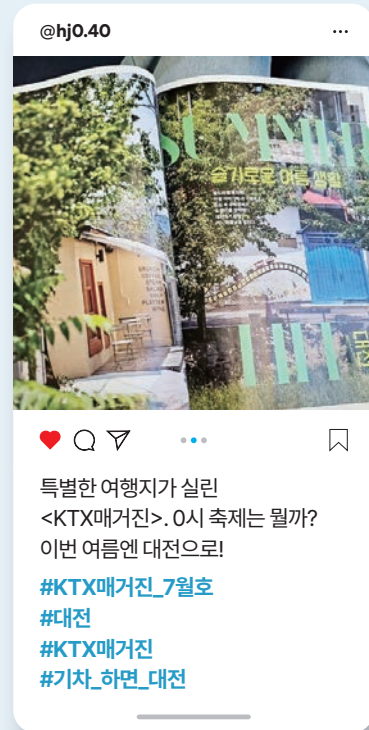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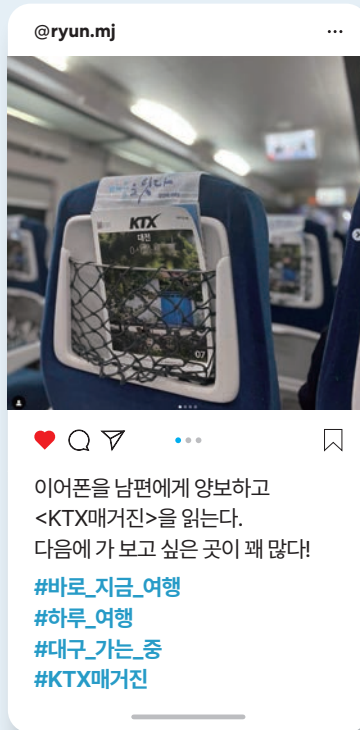
유튜브 채널 '원츄원주'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 원주역/만종역에서 청량리역까지 KTX-이음 이용 도착 시간입니다.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대구에서 딱 하나

대구트립



- #맛집
- #카페
- #투어_액티비티
- #패스
- #숙박
- #길안내
- #추천코스
- #할인쿠폰
- #이_모든걸_하나의_어플에서!





미지의 여름 낙원 스타방에르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맛보고, 근사한 벽화가 이어진 거리를 지나, 숨 막히는 피오르 앞에 선다.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낯선 여름의 쾌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Eduardo Grundt/Region Stavanger

잠에서 깨어나 무심히 밖을 내다봤더니 생경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도시가 스타방에르라면, 당장 눈앞에 호젓한 브레이아바트네트 호수와 알록달록한 외벽의 노르웨이 전통 가옥이 아물거린다면 날뛰는 심장을 좀처럼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짜릿한 상상을 밀어붙인 TV 여행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의 한 장면을 불러오기로 한다. 각각각색 캠퍼 4인방은 오슬로에서 송네피오르, 플롬, 오다를 거쳐 노르웨이 남서쪽에 자리한 스타방에르에 다다른다. 누구랄 것 없이 달뜬 표정으로 구시가지 감레 스타방에르를 거닐던 이들은 북유럽 신화 속 괴물 트롤 인형과 손 인사를 나누고, 온갖 해산물이 펼쳐지는 항구 주변 생선 가게에서 저녁으로 먹을 연어 한 마리를 산 뒤 18세기에 지은 목조 건물 250여 채가 늘어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며 북극의 낭만을 만끽한다.

이따금 맞닥뜨리는 벽화 앞에선 꽤 오랜 시간 머문다. 폐품을 활용하거나 그을린 벽면을 그림 요소로 차용하는 등 도시의 친환경적인 면모와 문화적 정체성이 유쾌하고 멋스럽게 드러나 있어서다. 감각적인 거리 미술과 신선한 먹거리, 항구의 활기와 황홀한 백야가 넘실거리는 도시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자연에 몸을 던질 차례다. 프레이케스톨렌, 일명 제단바위라고 부르는 604미터 높이의 장엄한 기암괴석을 등반해 루세피오르를 굽어보는 것이야말로 스타방에르 여행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장장 8킬로미터, 5시간 정도 걸리는 트레킹 코스를 소화해야 하지만 노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다. 무엇보다, 여정 자체가 아름답다. 기나긴 겨울을 보낸 암산 곳곳엔 녹은 눈과 얼음이 만든 호수, 물 웅덩이가 있다. 거울처럼 반듯한 수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정경도 가만히 응시하게 하는 여름의 시간이다. K

Stavanger



스타방에르는 박물관 도시로도 이름이 높다. 노르웨이 석유 박물관, 통조림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35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한 스타방에르 미술관이 여행자에게 지적 자극을, 미적 감흥을 안긴다.



정원도시, 광명 사는 곳이 곧 쉬러

광명시는 쉽고 치유가 있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 경기 제11회 경기 평화(平和), 평화(平花)정원으로 광명하다
정원문화박람회

http://www.gggarden.kr
2023.10.6. (목) ~ 10.8. (월)
광명 새빛공원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417 새빛공원 일대

주최



주관





K-POP

'덕질'은 진화한다

아티스트의 품격을 높이려는 팬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FANDOM

텔레비전이 남긴 강렬한 기억 중 하나는 장관을 이루던 풍선 물결이다. 브라운관 속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그들 앞으로 흔들리는 풍선이 마치 파도처럼 보였다. 무대에 오르는 가수에 따라 풍선의 빛깔도 바뀌곤 했다. 가령 H.O.T. 팬은 흰색,젝스키스는 노란색, 핑클과 신화는 각각 펄 레드와 주황색 풍선을 들었다. 풍선은 한국 아이돌 시장 초창기 응원 도구였고, 풍선 색깔이 곧 내 가수를 상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응원하는 방법도 풍선과 '떼창'에서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 달라진다.

최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수들이 출현했고 덩달아 팬클럽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저 아이돌을 좋아하는 집단을 넘어 팬클럽 이름과 활동이 여러 나라에 전파를 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타 이름을 내건 숲 조성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신화의 팬클럽 신화창조가 서울 달터공원에 '신화숲'을 만든 것이 K팝 팬덤의 숲 조성 시초다. 이후 다양한 스타의 숲이 생겨났다. 올해 3월에는 NCT 멤버 도영의 팬들이 서울 난지한강공원에 나무 783그루를 직접 심어 '도영숲'을 만들었다. 스타의 이름을 딴 숲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가수와 팬을 비롯한 모두의 휴식처도 된다. K팝 팬덤이 조성한 숲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속속 생겨나고 있다. K팝 팬덤 커뮤니티 '케이팝포플레닛'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K팝 팬덤이 가꾼 숲이 저장한 탄소량은 2만 8000톤에 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숲 입양' 개념도 등장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듯이 팬덤이 직간접적으로 숲을 가꾸는 일이다. 식재한 나무가 숲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숲을 입양해 잘 관리하면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벌채도 막을 수 있다. 팬들의 의식은 나날이 높아진다. 앨범을 구매한 뒤 포토 카드만 챙기고 CD를 버리는 행동을 반성하거나, 디지털 음원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트리밍 업체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이 같은 민심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포레스트팩토리를 설립해 친환경 소재 앨범을 발매한다. 또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솔로 앨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앨범을 출시한다. CD 대신 QR코드를 인식해 앱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ini라는 이름의 NFC 미니 앨범을 도입했다. 사이즈가 작은 데다 키링으로도 사용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를 재가공해 지난해 '2022 마마어워즈' 공식 응원봉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폐소재를 활용한 응원 도구와 굿즈도 다양해진다. 팬들은 새 응원 도구를 구매하는 대신 고쳐 쓰기도 한다.

아티스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팬덤의 노력은 나날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중국 팬들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김석진 공공복지도서관'을 건립했고, 샤이니 온유 팬들은 캄보디아에 우물을 만들었다. 가수 아이유와 팬덤인 유애나는 주머니 받거나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소통하기도 한다. K팝 팬덤 문화는 단순한 응원에서 내 가수와 함께 더 나은 세상 만들기로 확장 중이다. 나도 좋고 내 가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날을 꿈꾸며.



'스위트' 상품 한정구좌 모집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위치한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이그제큐티브클럽 마감임박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분홍 뒤 초록과 파랑, 창원

도심과 바다를 넘나들며 경남 창원을 만끽한다. 벚꽃이 진 뒤에도 창원의 색은 눈부시다.

봄 여행의 대명사 벚꽃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꽃 하나로 기억하기에 창원은 훨씬 크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도시다. 2010년 마산·진해·창원이 통합해 탄생한 만큼 각각이 개성 있고 볼거리와 먹거리 또한 풍성하다. 계획도시인 창원은 도로와 건물이 질서정연해 쾌적하고, 경남도립미술관·성산아트홀 같은 문화시설과 곳곳의 녹지 공간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지도를 살펴보아도 반듯한 길 사이사이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설계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한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자전거를 도입한 도시답게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적당하다.

‘대한민국 벚꽃 수도’ 진해는 일제강점기 군사도시로 개발한 흔적이 남은 곳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진해우체국, 진해역 일대에 100년 세월을 헤아리는 건물이 즐비해 역사를 생각하며 걷게 된다. 군항마을역사길은 물론 경화역, 여좌천, 안민도로 어딜 가든 벚나무가 곁을 지킨다. 꽃이 졌어도 여전히 눈부신 초록을 반짝이면서, 이름을 발음할 때부터 특유의 서정이 밀려드는 마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항구도시다. 돌섬, 저도스카이워크, 3·15해양누리공원처럼 바닷가 여행지를 즐기고 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로 허기를 채우는 환상의 코스가 기다린다. 이런 든든한 자원을 가진 창원시가 도심·해양·힐링 여행지 열두 곳을 정해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여행도 하고 특산품도 받을 기회다. 12



스탬프 투어 이용 방법

모바일 앱 '스탬프투어'를 설치한 다음 창원시를 검색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투어 장소를 방문하면 스탬프가 찍힌다. 열두 곳 가운데 스탬프 4개를 채우고 경품을 신청해야 응모된다. 매달 40명이 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기간은 올해 11월까지.

문의 055-225-3705



자료 제공 창원시청

도심

창원수목원

10만 4700여 제곱미터(약 3만 1600평) 면적 수목원이 도심에 있는 창원은 축복받은 도시다. 꽃의 언덕, 미로정원, 교과서 식물원, 유럽정원, 동요의 숲 등 이름처럼 고운 공간이 이어진다. 하이라이트는 선인장온실. 소설 <어린 왕자>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은 바오바브나무를 비롯해 바나나나무, 망고나무와 이국적인 선인장까지, 눈이 휘둥그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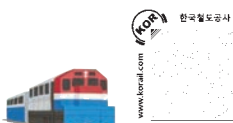
주소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산 14-1 문의 055-225-7121



경화역

1926년 영업을 시작했다가 승객이 줄어들고 문 닫은 역이 전국에 여행지로 명성을 얻었다. 철길 주변에 800여 미터 나란히 늘어선 벚나무는 낭만 그 자체다.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해 '한국에서 꼭 가 봐야 할 곳'이라 소개했다. 새마을호 열차를 가져다 전시관으로 꾸미고, 옛 역 건물을 본뜬 조형물을 설치해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의 외로움을 달래 준다.

주소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



해양

저도스카이워크

마산 육지와 섬 저도를 연결하는 170미터 길이의 다리 저도연륙교는 '과이강의 다리'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졌다. 영화 <과이강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하여 붙은 별명이 널리 퍼졌다. 다리는 바닥 일부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투명 강화유리를 깔 스키이워크가 아찔한 재미를 선사하는데, 매일 밤 7시에서 10시 정각에는 40여 분간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쇼도 진행한다.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872-56



광암해수욕장

324킬로미터 길이 해안선을 지닌 창원에서도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고운 모래에 수심이 얇고 파도가 적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해수욕장은 8월 20일까지 개장하며, 꼭 개장 기간이 아니라도 해수욕장과 주도 마을을 해상으로 연결한 산책로 풍경이 아름다워 사계절 언제든 갈 만하다. 방파제에 조성한 포토 존에서는 누구나 카메라를 꺼낸다.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안길 117-22



힐링

주남저수지

수만 마리 철새가 계절을 나는 보금자리이자, 그런 새를 관찰하는 명소 주남저수지는 898만 제곱미터(약 272만 평)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생태탐방 코스, 문화 탐방 코스를 걸으면서 물과 새가 만들어 내는 시 같은 풍경을 감상하고, 생태학습관과 람사르문화관에서는 건강한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운다. 물안개 피는 새벽이나 노을 질 때의 절경도 일품이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1 문의 055-225-3481



여좌천

이렇게 자그마한 개울이 이만큼 전국적으로 사랑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진해 시내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여좌천은 양옆의 벚나무가 위에서 맞닿아 녹음의 터널을 이룬다. 1.5킬로미터 거리의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 근처에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호수 변에 벚나무와 다양한 나무와 습지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사람에게 위로로 전한다.

주소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217





육즙 없이 도달한 프렌치 다이닝의 충만함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지향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오농'의 허진석 셰프는 채수와 유지방만으로 풍미를 완성한다.

프랑스어로 양파를 뜻하는 '르오농'은 이름처럼 커케이 풍미가 흥건한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곳엔 프렌치 다이닝의 필수 재료라 할 만한 가금류는 물론 어떤 육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 온 허진석 셰프는 언제부터인가 고기를 먹지도, 요리하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입맛과 철학까지 바꿔 놓은 셈이다. 서울 신사동 세로수길 한쪽에 아지트처럼 작고 아늑한 공간을 꾸민 셰프는 페스코 베지테리언-프렌치 다이닝이라는 자신만의 요리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이다.

도전, 페스코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란 채식을 지향하면서 해산물을 섭취하는 생활양식입니다. 원래 저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호주 멜버른의 한 호텔에서 일할 땐 쇠고기부터 캥거루 고기까지 다뤘죠. 그러다 제주의 호텔 레스토랑 R&D팀에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방에만 매여 있던 시절엔 몰랐던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환경문제와 식재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책과 영상을 흡수하면서 '내가 만든 요리가 맛있지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 '하루쯤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자연히 음식과 몸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어느 순간 육즙을 즐기는 행위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채식을 엄격하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식엔 육수가 많이 쓰이고, 하다못해 라면의 가루 수프에도 육류가 들어가니까요. 결론은 '육식을 최소화해 보자'였습니다. 다만 채식만으로는 영양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 생선이나 해산물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지요.

고기 없는 주방 '과연 육수 없이도 먹을 만한 프렌치 요리가 나올까?'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르오농의 음식이 더 흥미로울 겁니다. 고백하건대, 육수를 사용하지 않고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리라 결코 만만

한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선 무모한 도전이라고들 했죠. 이곳에서 육수 대신 쓰는 재료는 채수 또는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입니다. 고기 없이 풍미를 돋우려면 질 좋은 제품을 공수하는 게 관건인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기를 구입할 때보다 제조 원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혼한 메뉴, 혼치 않은 맛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해서 신선한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린 요리를 좋아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요리법이기도 하죠. 단순하면서도 착실한 맛, 르오농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느낌도 그렇지 않나요? 요리할 때 기본 중 기본인 재료가 양파인데,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도 양파이고 대표 메뉴 또한 양파 수프예요. 양파 수프는 어딜 가나 있는 메뉴지만, 맛을 제대로 내는 건 결코 쉽지 않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일주일에 이들은 온전히 쉬는데 집중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휴식을 취해 머리를 비우는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하루는 서울을 벗어나 근교로 떠납니다. 남은 하루는 제가 가꾸는 경기도 군포 농장에서 필요한 허브를 수확하고, 매장에 가서 다음 날 쓸 재료를 손질하면서 일상을 재정비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 건강한 요리를 만드니까요. 요즘 꽃힌 관심사는 명상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하루 다섯 번, 짧게 명상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눈 깜빡일 새도 없을 땐, 일을 하는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지요.

환경에 대해 말할 때 사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논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껴 쓴다고 해도 버려지는 음식물, 위생 때문에 사용하는 일회용 장갑 등 쓰레기가 참 많기도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지향하는 삶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줄이고, 식재료 일부를 자급자족하며 살아 가는 것뿐이죠.

허진석 셰프가 추천하는 미식 공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자주 갔던 서울 양재동의 임병주산동칼국수를 추천합니다. 30여 년 세월 동안 수많은 이가 허기를 달랜 공간이죠. 요즘 농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경기도 광주의 엄지매운탕도 빼놓으면 아쉬울 거예요. 얼큰한 매운탕과 깔끔한 밑반찬이 두루 훌륭합니다. 제주에 머물 때 자주 찾았던 서귀포의 공천포식당도 떠오르네요. 발효한 콩내음, 차가운 국물, 어육의 촉감이 잘 어우러지는 된장 물회를 좋아합니다.



허진석 프랑스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수료하고 국내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셰프로 일했으며, 2022년 르오농을 오픈하면서 오너 셰프라는 오랜 꿈을 이뤘다. 르오농이 최근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선정되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식당을 열고 미식 여행자를 맞는 것이다.

르오농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3-4 ☎0507-1324-9187 @l.oignon

여름, 맛이 영그는 식탁 토마토를 주재료로 한 애피타이저, 하지감자로 만든 푸레를 곁들인 농어 스테이크, 계우(전복 내장을 뜻하는 제주 방언) 소스를 올린 전복 등으로 여름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여름은 하지감자와 토마토의 계절이예요. 하지감자란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인 하지 전후로 나는 햇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토마토는 늘 볼 수 있지만, 맛이 가장 좋을 땐 지금이죠. 한창 살이 오른 전복과 농어도요. 모든 계절 음식은 식재료가 싱싱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리법을 더하기보다는 삶거나 구울 때 가장 맛있습니다. **㉠**

맛의 본질에 충실한 르오농의 메뉴

껍질을 벗긴 토마토에 마스카르포네 치즈와 파슬리, 아몬드 크림블과 모스카토 와인 젤리 등을 토핑해 현대하는 마음을 담은 애피타이저 '토마토'를 냅니다. 향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서브하면서 토마토 매리네이드 원액을 부어 드리죠. '전복'은 페코리노 치즈를 더해 맛을 돋운 콜리플라워 케이크에 수비드한 전복 살을 올리고 전복 내장 푸레를 끼얹어 만드는데, 산뜻함을 더하기 위해 샐러드와 미역 튀일을 넣어 완성합니다. 튀일은 마지막에 토치로 그을려 풍미를 극대화합니다. 전복을 저온 조리하고, 미역을 푸레에서 튀일로 굳히는 과정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죠. 크림과 우유 푸딩으로 구성한 '바바루아'가 코스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판나코타에 파인애플 소르베를 곁들이고 라임 제스트, 초콜릿 크림블을 더해 달걀 모양으로 꾸민 시원한 여름 디저트입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BACK TO 2000'S Y2K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을 뜻하는 Y2K 감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에디터들이 그 시절을 체험해 봤다.

그 시절 음식, 어디까지 먹어 봤니

은주_Eunju

Y2K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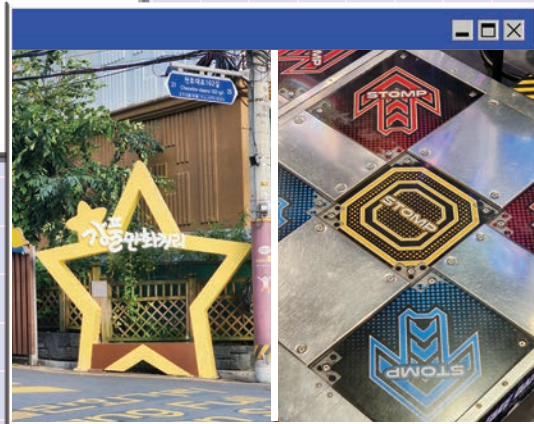
Y2K 박물관, 천호동으로 출동!

NICE!

기억나니



'킹 오브 빙수'를 기억한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아이스베리' 세대일 것이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05학번 이즈 백' 시리즈 '강동의 r존심' 천호...★' 편을 통해 아이스베리 천호점이 성업 중이란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몇 블록 옆이 '한스델리' 천호점이다. 그길로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찾았다. 한스델리의 푸짐함은 여전했으나 손님이 나뉘이라 잠시 서글퍼졌다. 아나나 다들까, 배삼만 사장님은 8월에 가게를 접는다고 했다. 그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아이스베리는 예나 지금이나 손님으로 북적거렸는데, '킹 오브 빙수'는 찾을 수 없었다. 아쉬운 대로 과일 빙수를 주문해서 단숨에 들이켰다. 어쩐지 헛헛한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오락실에 들러 오랜만에 '펌프'를 했고, 내친김에 강풀만화거리까지 걸었다. 그리고 보니 <순정만화>에 설레던 시절도 있었지. 아아, 응답하라,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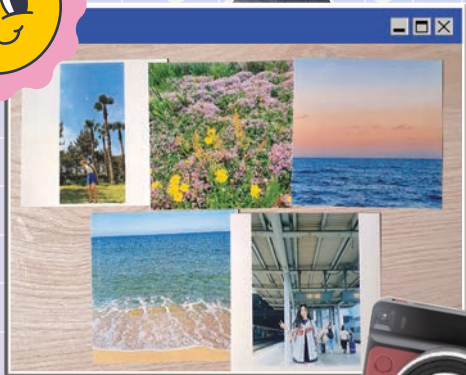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죠

송이_Songyi

Y2K 놀거리



지난 주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스티커 사진 찍자." 돌아온 대답. "요즘 누가 그걸 찍어." 스티커 사진을 대체 왜 찍느냐더니 막상 기계 앞에 서자 태도가 돌변한다. "손으로 입 가린 포즈 할 때는 눈 내리까는 거 까먹었나? 수줍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 훈계까지 한다. 이윽고 사진 꾸미기 시간이 되자 현란한 손짓에 웃음이 터진다. 꾸미기는 촬영을 마친 뒤 화면에 뜬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펜으로 글씨를 쓰며 치장하는 일인데, 시간제한이 있어 속도가 생명이다. 경험은 무시 못 한다. 손이 기억한다. 일사천리로 배경 색상을 선택하고 날짜와 'ANGEL' 같은 글자를 쓴다. 하트 모양 스티커도 빼놓지 않는다. 사진이 인화되는 동안 10대 시절로 돌아간다. '잘 나왔을까' '다시 찍어야 하나' 생각한다. 역시 사진은 인화를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설레다는 걸 오랜만에 상기한다. 자, 이젠 즉석카메라다. 친구야, 또 같이 찍을 거지?



GO!

2000년대를 드라마로 배웠습니다

혜림_Hyerim

Y2K 놀거리



"난 안 되겠니,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일단 이번 인생에서는 아닌 듯하다. 배우 조인성의 눈물 참는 명연기로 알게 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을 시청했다. 인터넷에서 '조인성 주먹 울음'으로 이름깨나 날렸으나 주먹을 넣고 울지 않는다는 사실에 1차 충격, 따위가 난무하는 드라마에 2차 충격. 제목만 알고 줄거리를 아예 몰라서 달달한 로맨스 장르일 거라 예상했는데... 영상을 보는 동안에 몇 차례나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폭력, 멈춰! 주인공이 모두 사망하는 충격적인 결말 역시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신선하다. '노구의 5단계 분노' 영상이 유튜브에서 유행을 탄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속 대가족이 한집에 사는 모습은 왠지 부럽고도 어색하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복잡복잡한 게, 재미있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만큼 불화도 존재할 테니 말이다. 그래도 화목한 노 씨 가족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은 따뜻하다.



Pohang

바다와 맞닿은 도시,
경북 포항에서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잊는다.

시원하게 후루룩, 포항 한 그릇



본가꼬막짬뽕

☞ 꼬막 짬뽕 1만 1000원 냉짬뽕 1만원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99-1 ☎054-252-2289



잡쌀 반죽을 입힌
탕수육은 냉짬뽕이나
꼬막 짬뽕과도
잘 어울린다. 이 집
탕수육은 돼지고기를
남작하고 알개
퍼서 튀기는 것이
특징이다.



TRAVEL TIP

풍경 유람과 미식 여행 모두 만족스러울 도시를 찾고 있는 이에게 포항을 추천한다. 구룡포, 영일대, 칠포 등 아름답기로 소문난 해수욕장과 아찔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등을 갖춘 데다 신선한 해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포항의 8월은 축제의 달이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월포 락(樂) 페스티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등 곳곳에서 신나는 행사가 열린다. 포항에서 시원하고 화려한 여름날을 만끽하자.

본가꼬막짬뽕_김민호 대표는 중국요리의 길만 25년을 걸어왔다. 그중 7년이 '본가꼬막짬뽕'의 시간이다. 크고 오동통한 꼬막이 듬뿍 들어간 대표 메뉴 꼬막 짬뽕부터 예사롭지 않다. 전남 여수 여자만에서 잡은 꼬막을 매일 아침 받아 짬뽕에 아낌없이 넣는데, 소뼈를 우려 진하고 담백한 육수와 직접 뽑은 면의 힘이 그만이다. 짬뽕 한 그릇에서 꼬막을 건져도 건져도 끝이 없다. 뜨거운 꼬막 짬뽕을 땀 흘리며 후후 불어 먹어도 좋지만, 여름이니만큼 시원한 메뉴가 그림자. 김 대표는 더운 계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 냉면에서 영감을 얻어 냉짬뽕을 개발했다. 파인애플, 오이, 사과를 넣어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나는 국물은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기에 제격이다. 탱글탱글한 면 위에 새우, 해파리, 쇠고기, 오이, 절인 무, 토마토, 달걀 등 고명을 수북하게 올려 완성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취향에 따라 양념장을 넣어 먹어도 좋다. 양념장에는 생강, 마늘, 청양고춧가루와 베트남 고춧가루에 두반장을 섞는 등 이곳만의 비법을 담았다. 화끈하고 새콤한 맛에 자꾸만 면발을 들어 올리게 된다.

정국수



☞ 오콩국수 8500원 비빔만두(소) 6500원
 ☞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34 ☎054-277-2779



정국수_이 계절이면 떠오르는 별미 중 하나가 콩국수다. 두부를 만들 때 쓰는 백태를 갈아 콩물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국수'의 오콩국수는 무려 다섯 가지 콩으로 만들어 영양이 풍부한 콩물을 사용한다. 고소한 맛의 백태, 서리태, 병아리콩에 철분과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한 레드 렌틸콩과 갈색 렌틸콩을 조합한다. 콩 종류에 맞게 온도와 시간을 조절해 볶은 후 갈아 내면 풍미가 살아난다. 면 반죽에는 말린 부추를 가공해 첨가했다. 포항에서 부추 농사를 40년 넘게 지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이정훈 대표가 부추를 말리면 감칠맛이 배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활용한 것이다. 그 덕분에 오콩국수는 더욱 먹음직스러운 빛깔과 맛을 지녔다. 튀긴 만두를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먹는 비빔만두 역시 만두피를 만들 때 부추를 넣어 초록빛이 돈다. 고기만두를 찐 다음에 적당히 말리고, 이를 다시 기름에 튀겨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기까지 하다. 여기에 양배추 샐러드와 깻잎, 당근을 더한 뒤 김, 깨, 참기름, 매실 농축액을 섞어 만든 특제 소스를 넣어 잘 비벼 준다. 샐러드와 비빔만두를 우물거리다 콩물을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태화횃집_3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지킨 횃집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이 힘을 합쳐 2대째 운영하는 곳이다. 반드시 맛봐야 할 메뉴는 바로 물회. '태화횃집'의 물회는 여느 물회와 달리 살얼음 언 육수를 붓지 않는다. 오직 채 썬 오이와 배, 싱싱한 참가자미회에 고추장 기반의 양념장을 넣고 비빈다. 먹다 보면 오이와 배에서 수분이 나와 촉촉해진다. 되직하면서도 깔끔한 포항물회 맛에 눈이 번쩍 뜨인다.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용남 대표가 살며시 말을 건넨다. "특별한 물회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먹던 것 그대로 손님에게 낼 뿐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물회의 정석인 거죠." 참가자미로 유명한 포항이니만큼회는 오직 가지미만 들어간다. 배에서 바로 잡아 올린 가지미를 하루에 두세 번씩 받는다고 하니,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 맛있고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면 각얼음을 요청해 보자. 물회를 맛보는 동안 얼음이 천천히 녹아 국물이 자작하게 고이는데, 회를 어느 정도 먹고 밥을 비벼도 좋다. 물회만 주문해도 다섯 가지 넘는 밀반찬과 가지미구이, 매운탕까지 내어 준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 포항물회 1만 8000원
 ☞ 포항시 북구 여남포길 57 ☎054-251-7678



태화횃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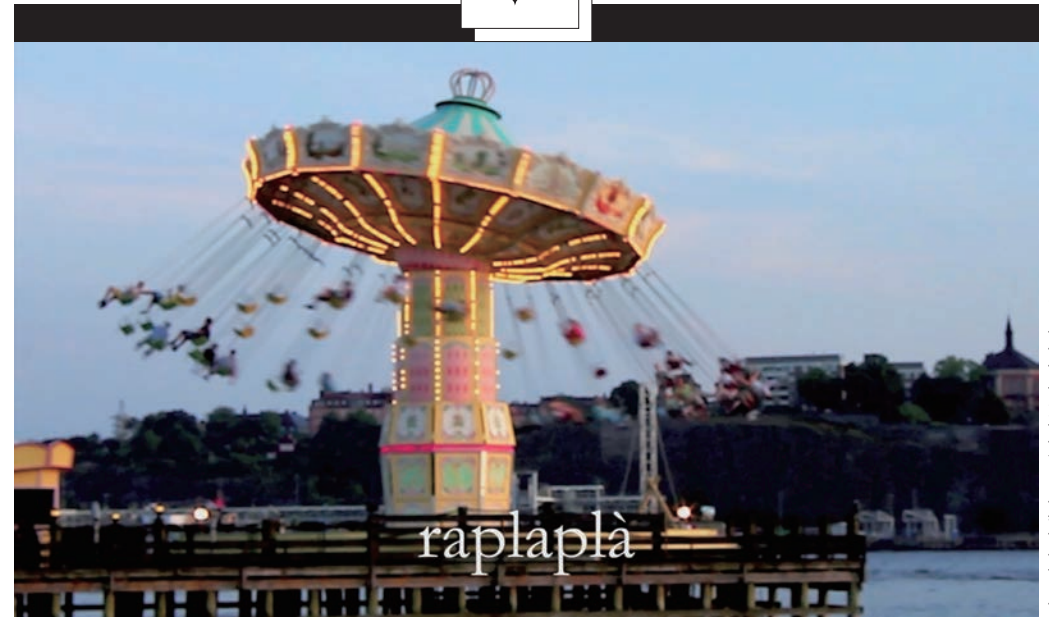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05

수안보온천 留園文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마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물입 가능한 휴식

what's up



사브리나 달레산드로, '작명 부사-이카리브 T', 2010~2016



키를라 아카르디, '붉은 게임', 2007



마리노 마리니, '말', 1945



• EXHIB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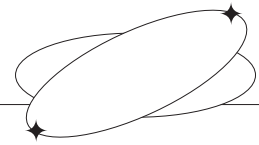
<위대한 이탈리아 비전: 파르네시나 컬렉션>

서울

07.15~08.20

이탈리아 미술의 결정체를 서울에서 만난다.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소장 컬렉션을 말하는 '파르네시나 컬렉션' 중 20~21세기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엄선한 작품 70여 점이 이탈리아 미술의 전통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추상미술부터 팝아트, 키네틱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역사와 지리, 환경과 이민 문제 등 주제별로 큐레이션했다. 이탈리아 외교협력부의 협력하에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아트선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전시다.

장소 서울 아트선재센터 문의 02-733-8949



whats up



• FESTIVAL •

춘천공연예술제

→ 춘천 → 08.08~12

강원도 춘천에서 고아한 몸짓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는 일상을 회복 중인 사람들의 내면 성장을 비는 의미에서 '다짐'을 주제로 한다. 장인숙 희원무용단의 '춤의 정원'이 막을 올리고, 닛새 동안 아홉 개의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가 폐막해도 한 달 동안 춘천공연예술제 네이버TV,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

장소 강원도 춘천 축제극장몸짓 외 문의 033-251-0545



• FESTIVAL •

2023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 익산 → 08.01~06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전북 익산으로 떠난다.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오싹한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방문자를 기다린다.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촬영한 익산 교도소세트를 활용해 홀로그램·VR·AR 전시장으로 꾸몄다. '공포의 수용소&면회실' 등 공포 체험도 마련했다. 귀신 복장을 하고 축제장에 방문할 시 사전 예약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장소 전북 익산 교도소세트장 문의 010-2587-7694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 전시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전남도립미술관

주관 전남도립미술관

협력 전라남도

협력 대구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전경자 <만선>, 1971, 종이에 채색, 121x105cm, 전남도립미술관 이건의 컬렉션. ©서울특별시.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2023.
08.17.- 10.29.

: 조우

The Lee Kun-hee Collectio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Special Exhibition «Encounter»

what's up



• SHOW •

<꼬레아 리듬터치 with 소리꾼 이봉근과 친구들>

● 서울 ● 08.31

한국 전통 국악 페스티벌 '꼬레아 리듬터치'의 문을 여는 공연으로 프로젝트 밴드 M, 소리꾼 이봉근과 친구들이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판소리는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방탄소년단의 '봄날' 등 친숙한 가요를 국악으로 편곡해 신선한 음악을 들려준다.

장소 서울 마포아트센터
문의 02-3274-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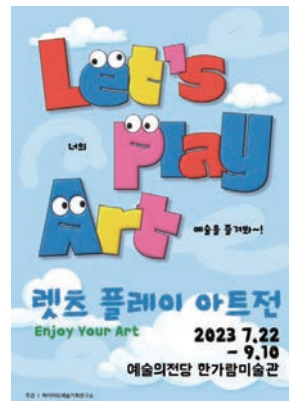
• EXHIBIT •

<렛츠 플레이 아트전>

● 서울 ● 07.22~09.10

여름방학을 맞아 대규모 작품 전시와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을 접목한 어린이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김진우, 오영실, 최석원을 포함한 한국 작가 25명의 회화, 조각, 공예, 일러스트 작품을 여섯 개 섹션으로 나눠 전시한다. 전시장 곳곳에 '골라주 하우스' '봇 터치 체험' 등 체험 존을 마련했으니 모두 찾아 알차게 누리자.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1668-1352



• EXHIBIT •

<알로록 달로록>

● 고양 ● 07.07~09.17

기쁨, 슬픔, 감정을 형태와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김은미, 아리송, 우정아, 정지숙 등 현대미술 작가 12명이 색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냈다. 회화는 물론 온몸으로 느끼는 설치미술 작품까지 전시해 미술관은 금세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뀐다.

장소 경기도 고양시립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 FESTIVAL •

영동포도축제

● 영동 ● 08.24~27

단순히 포도를 먹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다. 포도밭에 들어가 직접 열매를 따는 체험부터 포도를 이용해 와인, 포도즙 등 여러 가지 제품을 현장에서 만들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포도를 밟는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보랏빛 축제장에서 사랑하는 이와 달콤한 추억을 쌓는다.

장소 충북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일원
문의 043-745-8918



• FESTIVAL •

2023 괴산고추축제

● 괴산 ● 08.31~09.03

화끈한 맛의 고추가 여행자를 부른다. 보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 '속풀이 고추난타', 건고추를 넣어 놓은 불판장에서 황금 고추를 찾는 '황금고추를 찾아라' 등 부대 행사에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유기농 괴산가요제'가 더욱 흥을 돋운다.

장소 충북 괴산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
문의 043-830-3464

2023년 소(牛)맥 PREMIUM FESTIVAL



2023년 소(牛)맥 PREMIUM FESTIVAL

횡성
베이스볼
파크

23.
8.25~8.27.
3일간
18:00~22:00

- ✓ 세븐브로이 수제맥주, 횡성한우 먹거리
- ✓ 힙합배틀 전국경연대회, EDM파티, 힐링버스킹
- ✓ 백일홍 & 해바라기 포토존 등

주최주관 : Festival 추진위원회, 공근면행정복지센터
후원 : 횡성군, 횡성군문화관광재단

웰컴 투 마이 동!

유튜브에 서울 467개 동을 탐험해 브이로그를 올리는 네덜란드 크리에이터가 나타났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사랑하는 '아이고바트'의 바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웰컴 투 마이 동

#한국전쟁

#2000km 사이클

Q. 반갑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죠. 독자님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서른한 살 바트 반 게누겐입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한 건 2017년이었어요. 소주나 삼겹살 같은 한국 음식이 유행할 때 배낭여행을 왔다가 지금의 아내 휘아를 만나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강한 영감을 준 건 초록색 소주병이었습니다. 하늘공원, 서울숲 같은 서울의 모든 녹색 공간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 다녀온 후 제 여행을 역사, 문화, 사람과 결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행 채널을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감탄사인 '아이고'에서 착안해 채널 이름을 '아이고바트(iGoBart)'로 지었습니다. 채널에 북한 여행기를 올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Q. 지난해 9월 서울 467개 동을 탐험하는 '웰컴 투 마이 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거의 1년이 지난 셈인데, 지금까지 진행한 탐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영상을 찍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행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연히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홍대, 명동,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에는 여행할 만한 곳이 많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을 콘텐츠로 활용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도 도시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기록해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서울의 모든 동을 방문하는 프로젝트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50개 동 하나하나 소중히 기억합니다. 우이동은 등산객의 천국이고, 대치동은 사교육의 허브입니다. 서울 패션 산업의 심장부인 창신동 역시 매력적이죠. 특히 종로 피맛골이 기억에 남는데요. 원래 위치는 아니지만, 옛날에 피맛골은 평민이 말을 탄 양반을 피해 다녔던 골목입니다. 평민은 말을 탄 양반

을 보고 옆드려 절을 해야만 했거든요. 피맛골의 뜻을 풀면 '말을 피하는 골목'이랍니다. 옛 골에서 이곳을 처음 알았다는 분도 봤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사무실 벽에 서울 지도를 크게 그려 봤어요. 그리고 다녀온 곳은 색칠을 합니다. 각 동네를 여행하고 조사하며 매력을 파악해 서울 지도를 모두 칠하는 날, 제가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언젠가 이 여정을 책으로도 엮을 거고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어디든 그곳만의 특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네도

한국이라는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데, 껍질을 벗길수록 알맹이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여정도 많은 도움을 줬고요.



마찬가지예요. 한 동네가 품은 고유한 이야기는 그곳을 방문할 마음을 갖게 해요. 제가 하는 일은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길, 쉬운 길을 벗어났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한 이상 책임지고 이 지도를 완성하려고 해요.

Q. 한국전쟁 참전 용사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도 진행하셨지요. 이렇게 한국에 애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무언가를 알아갈 때야말로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데, 벗길수록 알맹이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여정도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나 봐요. 참전 용사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참전 용사에 관심이 대단했죠. 저에겐 K팝이나 K드라마보다 사람과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라의 사람과 문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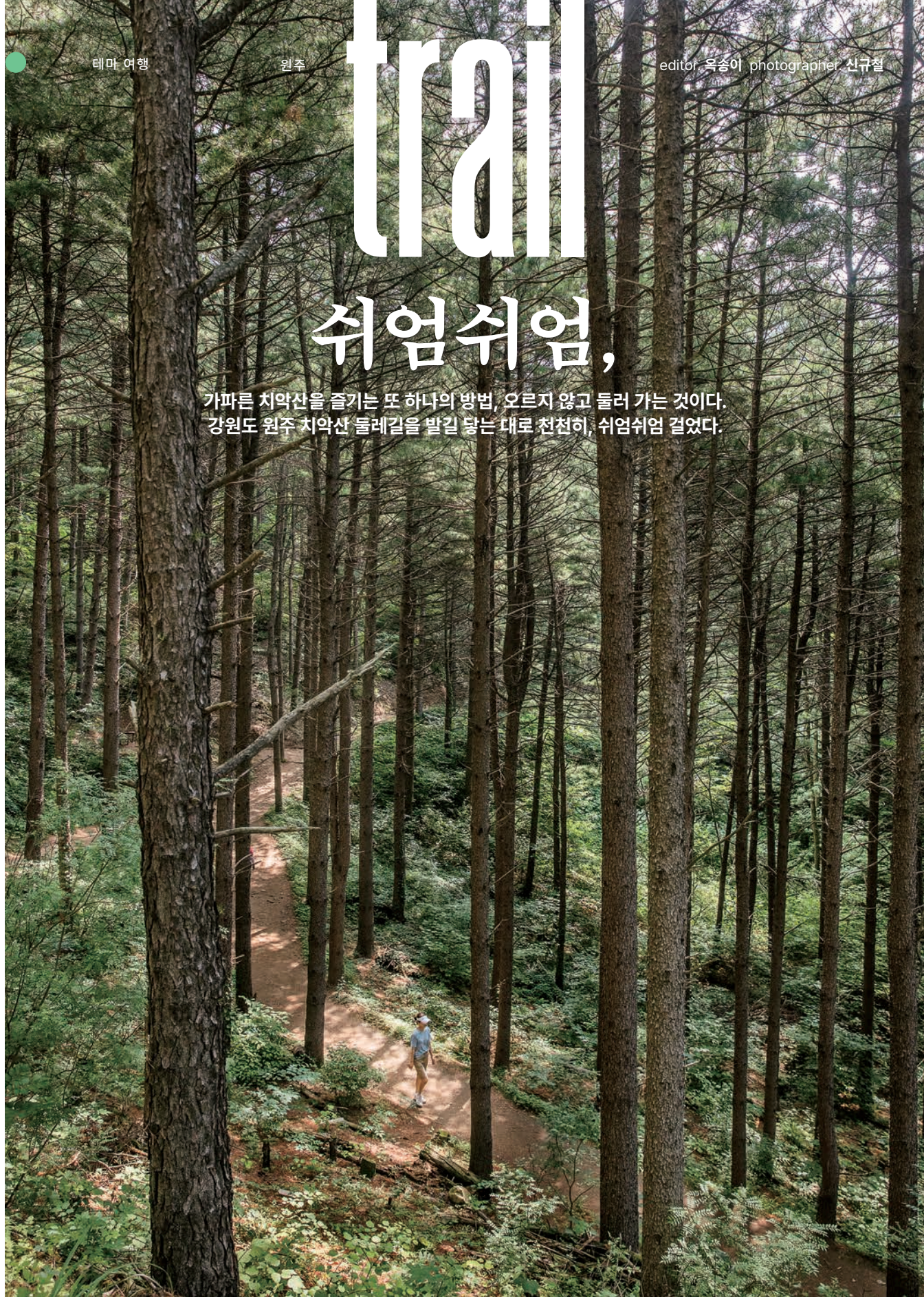
Q.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듯합니다. 한국의 여름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A.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 기억나는 곳만 해도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경남 남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방문했을 때가 잊히지 않아요. 해안도로는 웅장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채화 같았어요. 수평선에 등등 뜬 섬, 크고 작은 산, 반짝이는 해변까지 완벽했죠. 저처럼 자전거로 가 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①

'아이고바트'의 바트 반 게누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구독자 18만 3000명(7월 17일 기준)을 보유한 유튜버로,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올린다. 자전거를 타고 2000킬로미터를 달리는 여행 시리즈, 한국전쟁, 북한, 일제강점기 등 한국의 다양한 주제를 되짚는 시리즈,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을 만나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iGoBart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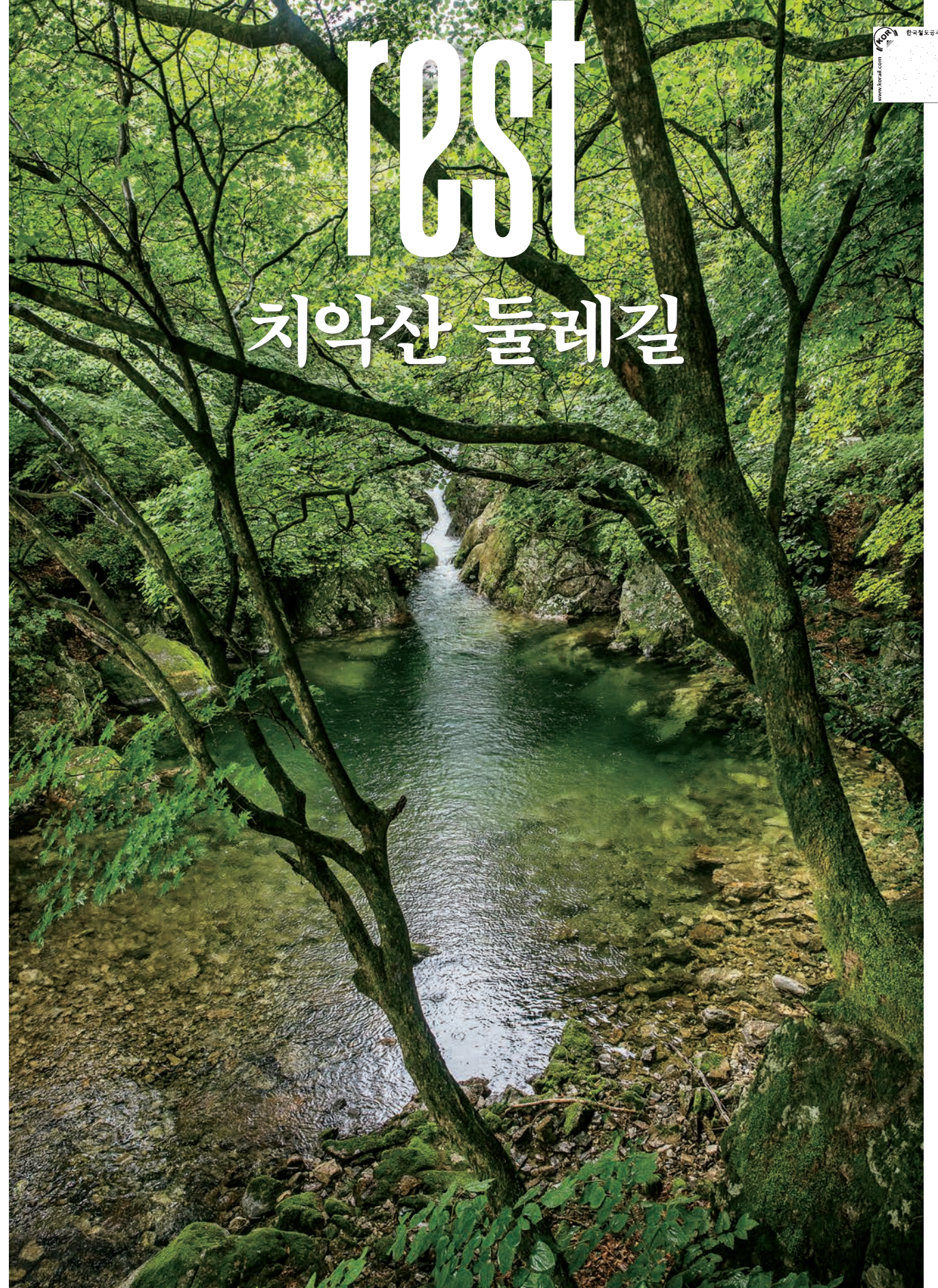
쉬엄쉬엄,

가파른 치악산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오르지 않고 둘러 가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둘레길을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쉬엄쉬엄 걸었다.



rest

치악산 둘레길





2021년 6월 11개 코스 전 구간을 개통한 치악산 둘레길은 도보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년간 73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11코스는 지난해 13만여 명이 찾았다. 문의 033-762-2080

선명한 햇빛 줄기가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숲 깊숙이까지 내리쬐다. 흐릴 것이란 예보와 달리 원주의 얼굴은 해사하다. 습기를 한껏 머금어 짙은 풀 냄새가 코를 간질이는 여름날, 치악산을 찾았다.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새와 벌레 울음소리까지 싱그럽게 물들었다. 치악산이 그려 낸 푸른 그림 속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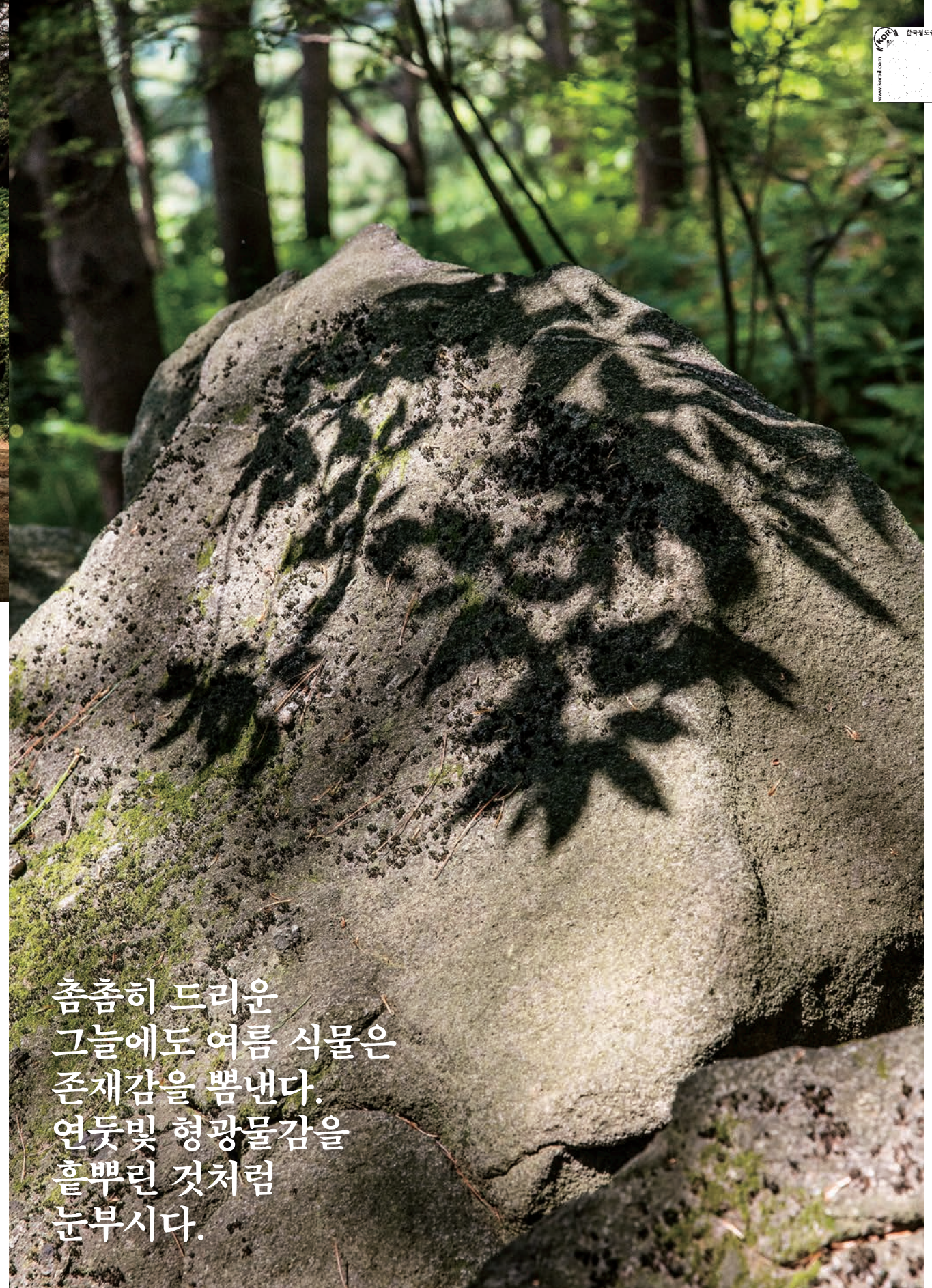
잣나무 숲, 깨끗한 공기, 맑은 마음

젖은 숨처럼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면 초록빛 풍정 속에 머무는 상상을 한다. 치악산으로 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원주 동쪽에 위치한 치악산은 차령산맥의 줄기다. 남북으로 힘차게 뻗은 능선의 이맘때 모습은 온통 풀과 나무다. 푸르고, 또 푸르다. 풍성한 여름 숲은 동식물엔 보고이며,

여행자에게는 자연을 누릴 기회다. 치악산이 국립공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험준한 산세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어도 된다. 둘레길에서 여유롭게 치악산의 정취를 즐길 수 있으니까.

139.2킬로미터 길이의 치악산 둘레길은 ‘악(岳)’산이 오르기 힘들다는 사실이 아니라 ‘큰 산’임을 알려 주는 길이다. 치악산 곳곳의 절경과 관광지, 오래된 사찰을 산책하듯 거닐며 살피도록 구성했다. 총 11개 코스 가운데 인기 구간은 11코스 한가터길과 1코스 꽃밭머리길이다. 관공서, 주거 시설 등이 밀집한 원주혁신도시와 인접한 데다, 평탄하고 아름다운 능선과 계곡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다. 이번 도보 여행의 들머리는 열한 번째 코스인 한가터길로 삼았다. 당둔지주차장에서 국형사에 이르는 8킬로미터의 구간이지만, 역으로 국형사 부근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도보 여행의 소소한 재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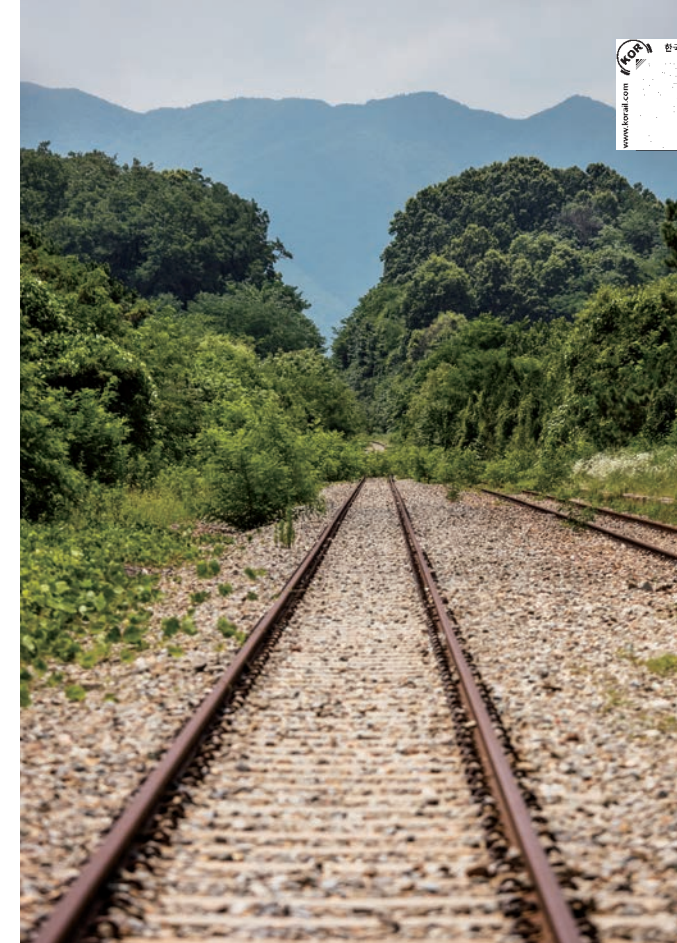
치악산은 예부터 기운이 영험한 산으로 알려졌다. 동악단(東岳壇)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태조 때 산신에게



츄츄히 드리운
그늘에도 여름 식물은
존재감을 뽐낸다.
연듯빛 형광물감을
흘뿌린 것처럼
눈부시다.



nature



제사를 올리기 위해 다섯 산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중 치악산은 백악산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다. 동악단은 동쪽의 제단이라는 의미다. 정종의 둘째 딸 희희 공주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간절한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이어진다. 동악단에서는 오늘날에도 매년 산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구불구불 개성 있게 자라난 소나무 사이에 자리한 이 조용한 향소가 제사 무렵이면 인파로 북적거릴 것이다. 숲길에 들어선다. 물줄기가 반들반들한 바위를 타고 흐른다. 본격적으로 걷기에 앞서 다양한 식생을 냄새로 깨닫는다. 꽃과 나무가 동시에 뿜어내는 향기가 상쾌하다. 나무가 촘촘히 드리운 그늘에도 여름 식물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햇빛 한 점 새지 않는데도 연둑빛 형광물감을 흩뿌린 것처럼 눈부시다. 발걸음을 옮기다 만난 주황빛 꽃이 반갑다. 김서원 숲길등산지도사가 설명을 덧붙인다. “나리꽃은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 중나리나 하늘나리라고 해요. 이 친구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나리겠네요.” 시선을 옮기자 세 갈래로 갈라진 잎사귀가 앙증맞다. 빛을 은은히 머금은 모습이 연등 같다. “생강나무예요. 이른 봄에는 노란 꽃이 피지요. 꽃에서 생강 맛이 난다고 해요.”
 폭신한 흙길을 걷다가 잣나무 군락을 만난다. 11코스를 들머리 삼은 가장 큰 이유다. 날씬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솟구쳤다. 목을 꺾고 고개를 들어야 나무 높이를 헤아릴 수 있다. 키 큰 잣나무 사이로 굽이굽이 난 길을 사람들이 지나간다. 저만치서 오가는 이들이 작은 점 같다. 자연 속 인간은 한낱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이 길을 맨발로 다니는 도보 여행자를 만났다. “이 근처에 삽니다. 맨발로 걸은 지 꽤 됐어요. 여름에 신발 벗고 흙길을 밟으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적당히 오르막도 있고, 잣나무 숲이 울창해 햇빛이 안 들어 좋아요. 디

+ 2023 원주 트레킹 페스티벌

9월 2일 '2023 원주 트레킹 페스티벌'이 열린다. 행구수변공원에서 출발해 11코스인 한가터길을 따라 잣나무 숲길을 거닐고, 1코스인 꽃밭머리길을 따라 원점으로 돌아오는 8킬로미터 거리의 트레킹 코스다. 여럿이 걸으면 즐거움이 배가된다. 문의 033-737-5137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에는 곧게 자란 소나무가 아름다운 황장목 숲길이 있다. 황장목은 누런빛을 띠는 질 좋은 소나무를 일컫는다. 문의 033-732-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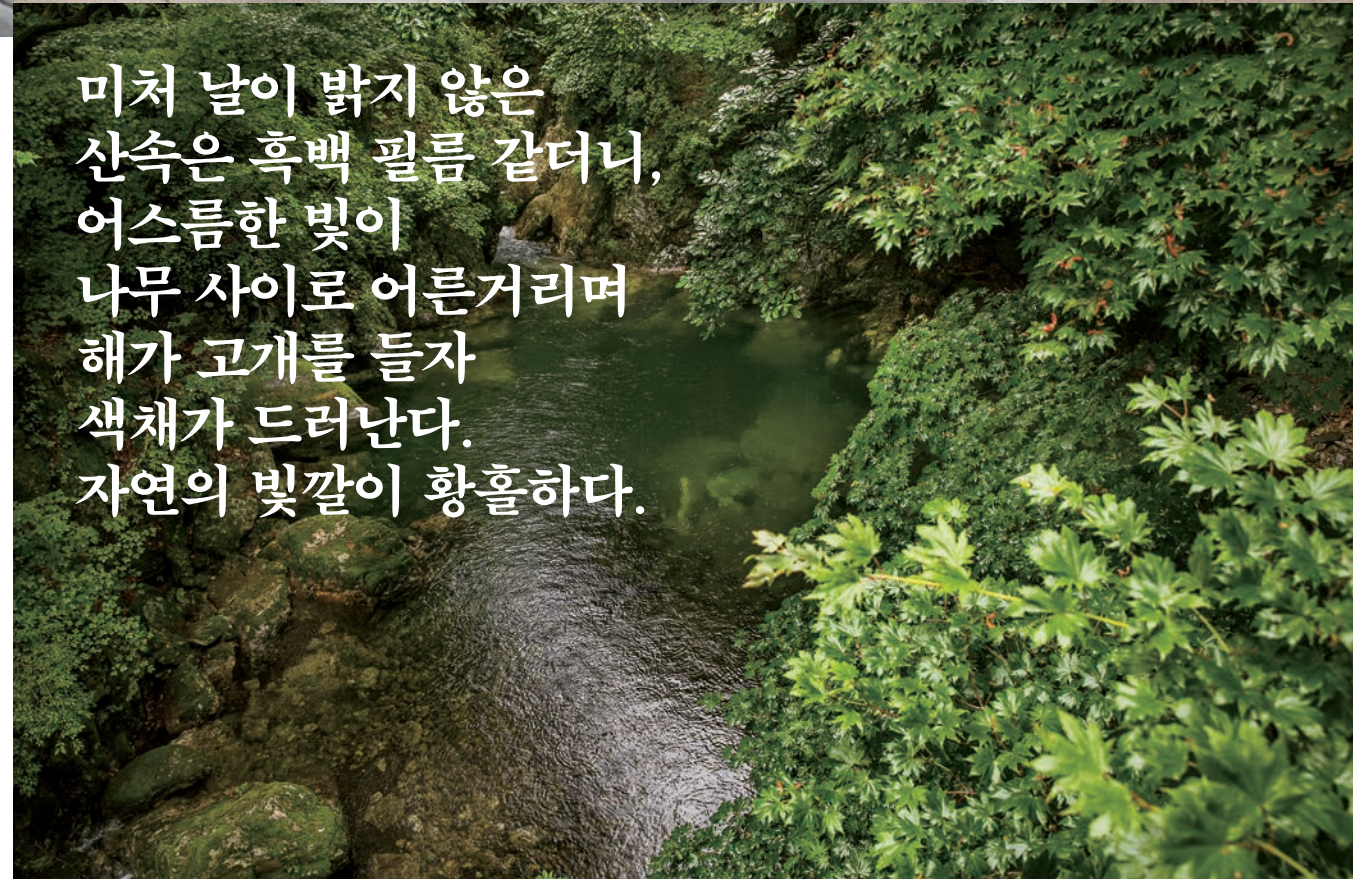
심신을 내려놓다, 구룡사

한참을 걸었으니 쉬어 갈 때다. 2코스인 구룡길로 향한다. 구룡길은 상초구길에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까지 7킬로미터에 이른다. 코스의 절경으로 꼽히는 구룡사에서 찬찬히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입구에서 거대한 바위를 맞닥뜨린다. 이끼 낀 바위는 영락없이 거북 등딱지를 닮았다. 이 사찰은 거북과 연관 깊다. 신라 문무왕 8년인 66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본래 아홉 용을 뜻했으나, 거북바위 때문에 절 기운이 약해지자 이름을 거북 구(龜) 자를 써서 구룡사로 바꿨다고 전한다. 걸음을 옮기니 위용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지키는 보호수다. 가을이면 흔들리는 은행잎이 구룡사를 더욱 장관으로 만들 것이다.

사천왕문에 이르렀다. 근엄한 표정의 사천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와 돌계단을 마주한다. 이 계단은 절 안과 밖을 구분하는 누각인 보광루 밑을 지나도록 설계됐다. 건물을 지지하는 배흘림기둥을 바라보며 계단을 오르면 절 마당과 대웅전이 펼쳐지는 형태다. 보광루에 들어서



미처 날이 밝지 않은
산속은 흑백 필름 같더니,
어스름한 빛이
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며
해가 고개를 들자
색채가 드러난다.
자연의 빛깔이 황홀하다.



스크 환자였는데, 매일 걸어 몸이 호전됐습니다. 여기 맨발로 걷는 사람 많아요.” 그의 말대로 흙길을 맨발로 즐기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띈다. 서두르는 이 없이 다들 여유롭다. 숲속에서 맑아진 마음을 안고 반곡역으로 간다. 2021년 폐역이 된 반곡역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서려 있다. 임산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1941년 운영을 시작했으며, 목재를 원활하게 운반하고자 근처 산림역과 반곡역을 잇는 치악산 자락에 굴을 뚫었다. 그리고 두 역의 고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프 형태로 터널을 만들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뱀이 몸을 꼬리 튼 것 같다 하여 꼬리굴이라 불렀다.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들을 애도하는 반곡역의 조형물들 곁에서 잠시 묵념한다.

<KTX매거진> x MBC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원주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8월 5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단청 하나하나 눈에 담는다. 모두 아름답고 화려한 가운데, 천장이 정교하다.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우물천장인데, 격자로 짠 틀마다 색이 다른 연꽃무늬를 새겼다. 이제 자박자박 마당을 걷는다. 석탑 앞에 걸어 둔 노랑, 분홍, 보라색 발원문이 바람에 나부낀다. 소원의 색도 알록달록할 것만 같다.

구룡사에서 여장을 풀기로 한다. 범복으로 갈아 입고 마루에 걸터앉는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비가 시원시원하다. 비 오는 산은 금세 구름이 들어 찬다. 수증기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다. 담장과 처마 사이에 담긴 치악산은 산수화 한 점을 떠오르게 한다. 등성이마다 걸린 안개가 하얀 연기처럼 바람결 따라 이리저리 피어오른다. 마루에 드리웁는다. 눈앞에 있는 것은 운무가 훑날리는 치악산, 들리는 것은 오직 빗소리뿐이다. 꿈인 듯하다. 한참을 마루에서 머물다 저녁 타종을 하러 간다. 템플스테이를 주도하는 법사인 수월스님이 돕는다. “구룡사 종각을 불음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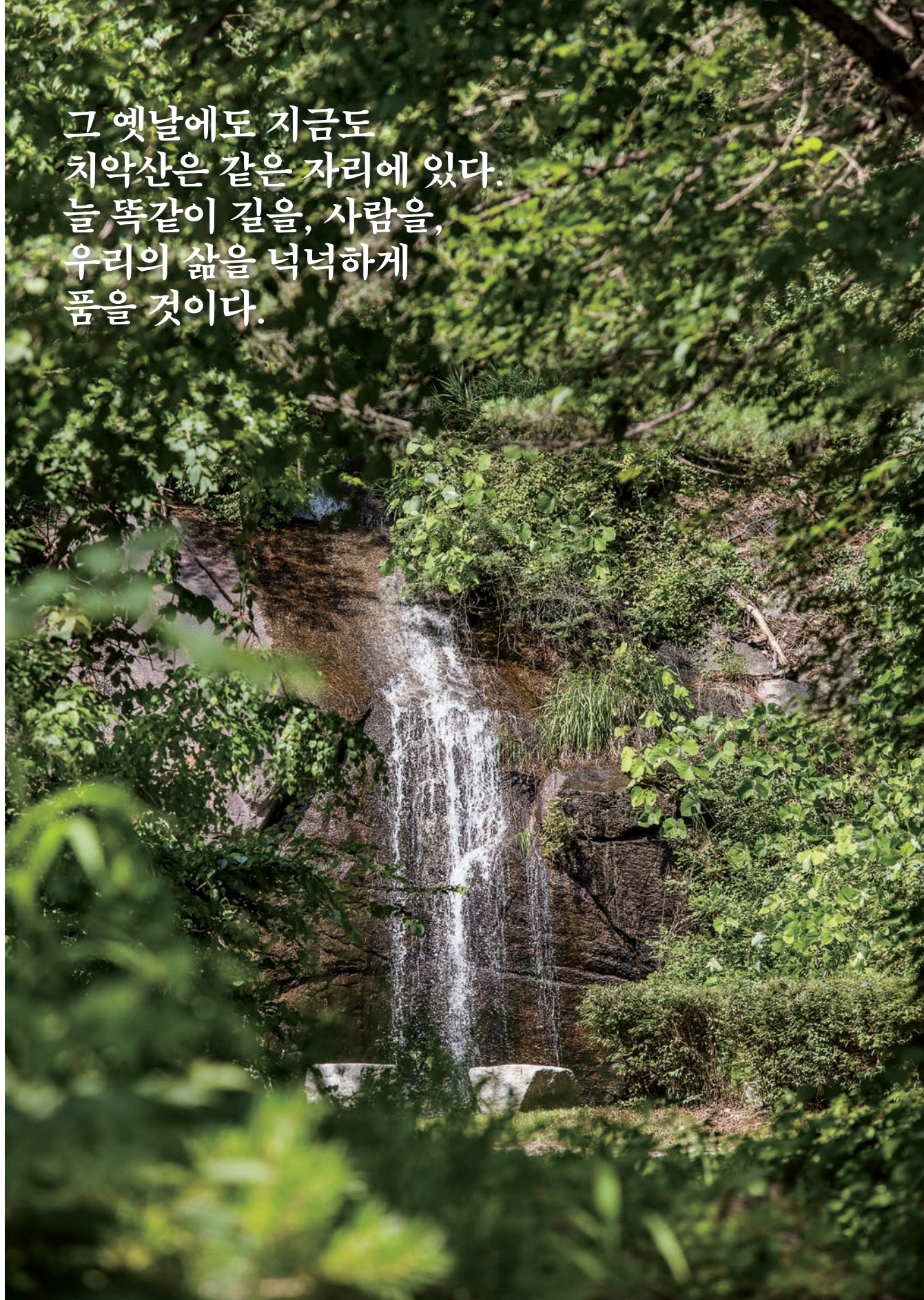
물론, 물에 살거나 땅에 사는 축생, 해와 달, 나아가 우주의 모든 존재를 깨워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겠다는 의미지요.” 힘껏 종을 쳐 본다. 강한 울림이 발끝으로 들어와 몸과 머리를 통과해 귀로 나간다. 골이 쩡하다. 소리와 진동이 점차 잦아든다. 그러면 다시 타종하고, 또 소리가 작아지길 반복하는 동안 잡념이 사라진다.

절을 온전히 누리기 좋은 시간은 조용한 새벽이다. 산책 길에 나선다. 간밤에 내리던 비가 여태 이어져 사위가 어둡다. 미처 날이 밝지 않은 산속은 흑백필름 같다. 어스름한 빛이 나무 사이로 어른거릴 뿐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흑백이다. 다만 검은색의 짙고 열음만이 다를 따름이다. 자연이 깨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계곡물이 청량하게 흐르는 가운데 개구리가 참방 물속에 뛰어든다. 걷다 보니 날이 개고, 해가 고개를 든다. 다시 색채를 입은 풍경을 감상한다. 절에 돌아와 아침 예불에 참여한다. 이른 시간, 고요한 분위기 속에 목탁 소리가 일정한 간격

원주 구룡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자유형으로 운영하기에 타종, 예불, 108배 하며 염주 만들기 등의 체험은 자율 선택이다. 문의 033-731-0503



그 옛날에도 지금도
치악산은 같은 자리에 있다.
늘 똑같이 길을, 사람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품은 것이다.



을 두고 명징하게 울려 퍼진다. 소망과 행복을 바라다가 결국은 명상에 빠져든다. 가끔은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잡념을 비우며 구룡사를 빠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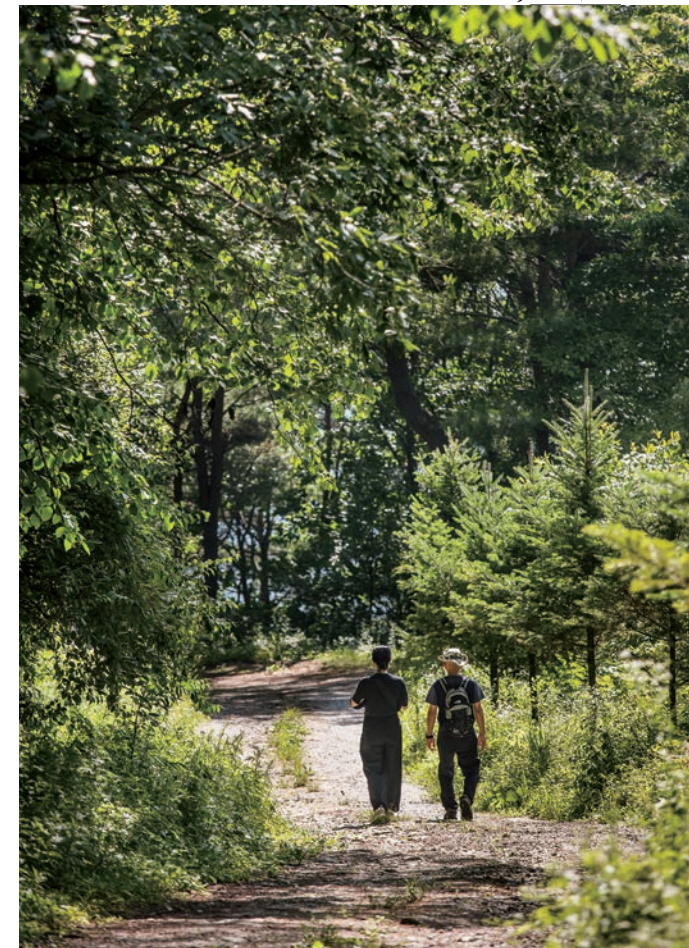
길과 사람, 짜리치엿길

치악산 둘레길은 웅장한 자연 속을 거닌다는 점만으로도 벅차지만, 옛 모습을 포개어 보면 색다른 산책을 할 수 있다. 석기동에서 용소막성당에 이르는 9.8킬로미터의 7코스 짜리치엿길에는 여러 사연이 숨어 있다. 흙길 위로 서벅서벅 밟히는 자갈이 소박한 정서를 자아내는 이 길을 <섬강은 어드메뇨 치악이 여기로다>를 집필한 김영식 작가와 함께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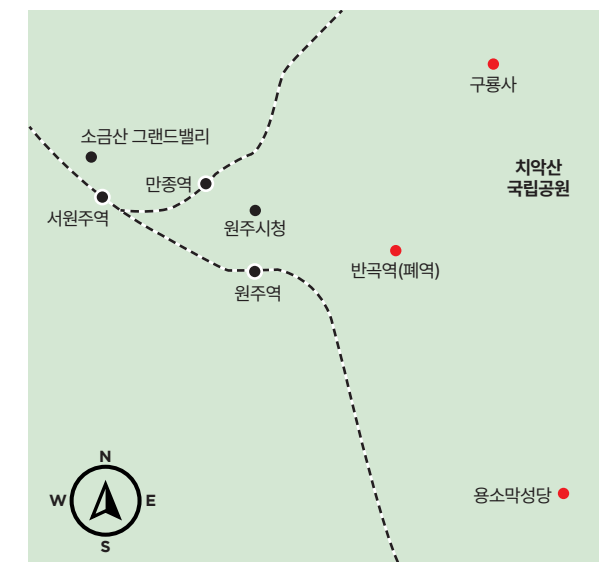
짜리치는 빗자루 재료인 짜리나무에서 온 말이다. 산굽이를 돌 때마다 짜리나무가 지천이었기에 짜리재라고도 불렀다. 구태여 코스 이름에 옛길을 붙인 까닭은 지난 1988년 88국도가 생기면서 점차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서다. 김 작가가 설명한다. “지금은 오솔길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영월로 가는 외통길이었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가 다녔습니다.” 한여름 창문을 열어젖힌 완행버스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상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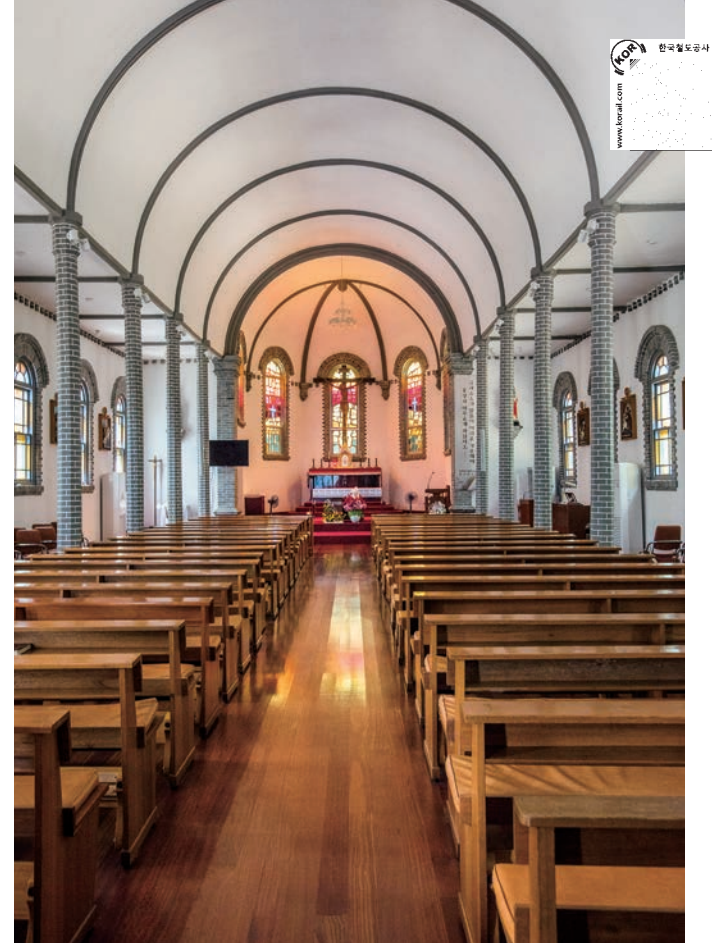
원주에서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점을 잠시 주목한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 단종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짜리재는 단종이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로 가기 위해 넘은 고개 중 하나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에 따르면 1457년 6월 22일, “영월로 떠나는 노산군을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노산군은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뒤 받은 칭호다. “음력 6월이었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한여름에 유배 길에 오른 것입니다. 군사 50명이 영월까지 호송했다고 해요.” 오늘의 짜리재는 평온할 뿐이다. 과거에도 이 길은 구불구불했다는데, 단종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개를 넘었을까. 만 열여섯 살 옛 왕이 애처롭기만 하다.

통탄할 역사만 서린 것은 아니다. 궁예 이야기도 전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는 열 살이 되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원주역까지 50분 정도 걸린다. 서원주역과 만중역에도 정차한다.





던 해 영월 세달사에 승려로 들어간다. 기회를 엿보던 궁예는 원주의 도적 양길의 수하에서 세를 넓힌다. 양길의 신임을 얻은 궁예는 영월, 평창 등을 장악하도록 명 받는다. 이때 궁예가 출정에 나선 곳이 원주 석남사다. “석남사지는 원주시 신림면에 있습니다. 궁예는 삼국통일의 꿈을 안고 이 싸리재를 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군사 100명을 끌고 나가 3년 지나서는 영동을 다 장악했다고 해요. 궁예에게 원주 석남사와 싸리재는 첫사랑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드라마 한 편을 본 듯 생생하다. 싸리재는 생선, 소금, 땀감 등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도 했다. 맞은편에서 보부상이 지나치는 모습을 그려 본다. 그가 짊어진 봇짐은 삶의 무게만큼 무거웠으리라. 7코스를 건다가 용소막성당에 닿았다. 첨탑 위의 십자가가 빛난다. 벽돌로 지은 아담한 성당 건물 주위로는 울창한 느티나무가 열을 지어 엄숙한 가운데 아름답다. 1866년은 가혹한 해였다. 박해를 피해 산으로 숨어든 신자들이 마을과 공

소를 만들었고, 이후에 강원도의 세 번째 성당인 용소막성당을 설립한다. 성당 부지 한편에는 성 라우렌시오 유물관이 자리한다. 1950년대, 한국 천주교 최초로 구약성서를 한국어로 번역·간행한 성 라우렌시오 선종완 신부를 기리는 공간이다. 선 신부는 직접 제작한 부채꼴 모양의 책상을 썼다. 아코디언을 펼쳤을 때처럼 마디마다 책이 꽂힌 모양새다. 한자리에서 고개만 돌리면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2단으로 만들었다. 연구는 고독하고 치열했을 테다. 고즈넉한 성당 벤치에 앉아 치악산이 품은 이야기들을 떠올린다. 치악산의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어떤 이에게 원대한 꿈과 소망을 바라는 장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계와 애환의 기억이리라. 그저 일상이기도 했고, 휴식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 옛날에도 지금도 치악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늘 똑같이 길을, 사람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품을 것이다. **㉠**

신림면에 있는 용소막성당은 풍수원성당, 원주성당에 이어 강원도에 세 번째로 들어선 성당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다. 문의 033-763-2343



A Leisurely Walk Along Chiaksan Dullegil

One way to enjoy the steep Chiaksan Mountain is to go around it without climbing. I slowly strolled along Chiaksan Dullegil in Wonju, Gangwon-do Province.



The clear rays of sunlight penetrate through the gaps in the branches and reach deep into the forest. Contrary to the forecast of clouds, Wonju's face is filled with sunshine. On a summer day, filled with humidity and the strong scent of grass tickling my nose, I found myself at Chiaksan Mountain.

Pine Forest, Pure Air, Clear Mind

On days when my body and mind feel heavy like damp cotton, I imagine myself immersed in the green of nature. That's also the reason I head to Chiaksan Mountain. At this time of year, Chiaksan Mountain is covered in green grass and trees. The lush summer forest is a repository for animals and plants, and an opportunity for travelers to enjoy nature.

My starting point was the 11th course, Hangateogil, out of the 139.2-kilometer-long Chiaksan Dullegil. Even in the shade created by the dense trees, the summer plants still make their presence felt. It is shining brilliantly everywhere, as if sprinkled with fluorescent paint. Walking on the soft dirt path, I come upon a cluster of pine trees. The slender trees rise confidently towards the sky. From a distance, the people passing by look like tiny dots. In the presence of nature, humans are insignificant beings.

Guryongsa Temple, Healing the Body and Mind

I head towards the 2nd course, Guryonggil. I decide to spend some time at Guryongsa Temple, which is considered a scenic spot on the course. As I step out of the Four Guardians Gate, stone stairs appear before me. These stairs are designed to pass through Bogwangru Pavilion, which separat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temple. I climb the stairs while admiring the architectural entasis, and the temple courtyard and Daeungjeon Hall unfold before me. I take in every detail of Bogwangru Pavilion. The lattice frames are engraved with lotus patterns, each in a different color. The yellow, pink, and purple prayer flags hanging in front of the stone pagoda flutter in the wind.

At Guryongsa Temple, I change into temple clothes and sit on the wooden floor. The rain, which has just started to fall, feels refreshing. The picturesque Chiaksan Mountain is covered in mist at each peak. The mist, like white smoke, rises and dissipates with the wind. Before me is the enchanting sight of Guryongsa Temple, and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drops. It feels like a dream.

Ssarichi Yetgil, From Paths to People

If you weave in a bit of history, you can enjoy a different kind of walk along Chiaksan Dullegil. The 7th course, Ssarichi Yetgil, is one of the passes that King Danjong of the Joseon Dynasty crossed on his way to Cheongnyeongpo Cape in Yeongwol, where he was exiled. Today, Ssarijae is peaceful. I reach Yongsomak Catholic Church, the third cathedral in Gangwon-do Province. It was established by Catholics who sought refuge in the mountains to escape the persecution. The cross on the top of the spire shines brightly. The modest brick church building is surrounded by lush zelkova trees, creating a solemn and beautiful atmosphere.

Sitting on a bench, I recall the stories delivered by Chiaksan Mountai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Chiaksan Mountain still stands in the same place. It will always be there, embracing paths, people, and our lives. 📍





원주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원주 댄싱카니발 올가을 원주에서 열정적인 춤사위가 펼쳐진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원주 댄싱카니발이 올해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주 댄싱공연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의 꽃은 단연 댄싱카니발이다. 댄싱공연장에 마련한 100미터 길이의 무대가 참가자들의 경연장이다. 런웨이를 중형무진 누비는 참가자들의 개성 있고 창의적인 춤에 흠뻑 빠진다. 프리지페스티벌·프리댄싱페스타 등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기고, 마켓플레이스에 둘러 지역 특산물도 맛본다.

문의 033-760-9882



소금산 그랜드밸리 원주의 자연을 짜릿하게 즐겨 보길 권한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소금산·섬강을 한데 아우르는 복합 문화 관광지다. 이곳 소금산 출렁다리는 한 발 디딜 때마다 아찔하지만, 거칠게 솟은 기암괴석을 살피기 좋다. 심화 과정은 울렁다리에서 체험한다. 404미터 길이로, 출렁다리의 2배에 달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더욱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울렁다리 부근에 길이 285미터의 에스컬레이터가 놓이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산악 케이블카도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033-749-4860



먹거리

슬로우파크 치악산 둘레길 1코스 중 국형사 부근, 붉은색 벽돌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2012년부터 운영한 카페 슬로우파크다. 널찍한 통창에 치악산을 가득 담은 카페는 '천천히 쉬어 가라'라는 의미대로 여유로운 분위기다. 차를 마시며 치악산을 한가롭게 감상한다. 느낌의 철학은 메뉴와도 맞닿아 있다. 시그니처 메뉴 첼바슈페너는 2주 이상 숙성한 바닐라 빈으로 만든 시럽을 사용한다. 다른 음료도 수제 청을 활용한다. 호두 크림볼 파운드케이크에는 이곳에서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가 들어간다. 빵을 만드는 밀가루와 설탕도 유기농이다.

문의 033-734-4888



원주 전통시장 만두 원주 전통시장에서 자신 있게 '칼만'을 주문해 본다. 칼만은 칼국수와 만두를 합친 음식이다. 칼국수 국물에 손만두가 풍당 들어간다. 빨간 양념장은 취향껏 넣자. 별도로 주문할 수 있는 찐만두, 튀김만두도 별미다. 이 지역 만두의 역사는 50여 년에 이른다. 1970년대 시장 골목에서 시작한 만두집이 대를 이어 장사하는 곳도 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인 도래미·자유·중앙시장에서 모두 사랑받는 만두의 대표성을 살려 올해 10월 28일과 29일 원주 만두축제를 연다. 만두 만들기 체험, 레시피 경연에 참여하고 문화 예술 공연도 감상한다.

문의 033-737-2942

프로모션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맞는 건강한 여름, 그리고 특별한 라운드

무더위를 견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쾌적한 마사지를 즐기고,
파나소닉 고객 초청 프로모션 대회에 응모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다. 그만큼 피로감과 중압감도 높아지기 쉬워 깊고 느긋한 휴식이 간절하다.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제안하는 궁극의 여름 나기 방법을 따라 하면 어떨까. 외출이나 운동, 장시간 실내 근무 및 공부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빠근함과 결림을 호소하는 이라면 지금 바로 안마의자가 선사하는 확실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을 경험해 봐도 좋다. 뭉친 근육을 공들여 풀어 주는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당신의 여름철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다. 프리미엄급 제품의 경우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까지 선보인다.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한다. 게다가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운동하고 난 것처럼 개운한 어깨와 다리

파나소닉은 헬스케어 가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선도해 왔다. 88년 세월 동안 부단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 제품을 완성했다.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 준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시원하게 눌러 주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볼은 다채로운 주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

필드에서도 빛나는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품격

파나소닉이 제안하는 건강한 생활은 필드에서도 이어진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을 구매하는 고객 중 100명(50쌍)을 추첨해 제8회 파나소닉 고객 초청 프로모션 대회에 초대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US 여자 오픈 우승자 유소연, 이정은6 프로가 참여해 필드를 빛낸다. 당첨자에게는 대회 전날 사용할 수 있는 하이원 호텔 1박 투숙권과 조식도 제공한다.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Picnic

우리 같이 광명 나들이

폭포 위 출렁다리를 누비고, 동굴을 탐험하며 더위를 식힌다.
아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으로 소풍을 떠났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가슴이 떨리기 마련이다.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 안, 자리에 앉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달랑달랑 흔든다. 기차역으로 향할 때부터 지은 미소는 아예 얼굴에 자리를 잡았다. “출발할 때는 느렸는데, 지금은 엄청 빨라요!” 창밖을 가리키며 소곤거리더니 이내 빙글 웃는다.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이 순간이 설레는 걸까. 반짝이는 눈에 비친 풍경이 빠르게 스친다. 아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KTX는 착실히 움직인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광명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수도권 전철 1호선도 광명역에 정차한다.

숲속 탐험, 도덕산공원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승강장이 붐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과 가족과 손 인사를 나누는 사람, 무전기로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무원 사이를 지나 거대한 광명역을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조금 더 먼 곳이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달리는 내내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기대감

이 샘솟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일 테다. 즐거운 생각이 머릿속을 채울 즈음, 질푸른 나무로 우거진 도덕산이 가까워졌다.

도시 북쪽, 볼록 솟은 도덕산에는 아담한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다. 계단을 올라 공원 입구에 서자 바닥분수와 인공 연못이 드러난다. 분수가 나올 시간이 아닌 공원은 조용하지만, 곧 고요를 깨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는 탐험가가 된 듯 낮은 곳에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다가 어느새 쪼그려 앉아 기어가는 곤충들을 관찰한다. 덩달아 그 시선에 맞춰 공원을 자세히 살핀다. 나무 정자 위에 소복한 능소화가 바람에 살랑이고, 매미가 찌르르 우는 소리도 들려온다. 조용한 듯해도 곳곳에 생기가 담겼다. 도덕산이 건넨 환영 인사에 금세 더위를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

산 위쪽으로 난 길을 따라간 뒤, 야외학습장을 지나 숲 사이에 난 계단을 하나씩 오른다. 중간마다 유아숲체험장, 야생화자연학습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으나 우리 목



도덕산공원은 광명시 북쪽에 자리한다. 바닥분수, 유아숲체험원, 야생화자연학습장과 스릴을 만끽하는 Y자형 출렁다리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지루할 틈이 없다.



“쉿, 저기 새가 앉아서 깃털을 다듬어요.
목욕하는 걸까? 친구 만나러 가나?”
몸을 낮춘 아이는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작은 새의 몸짓 하나에도 궁금한 것이 가득이다.

걷는 동안 슬쩍 옆을 보니 아이의 시선은 구멍이 송송 뚫린 바닥에 머문 채다. 세 다리가 이어지는 동그란 철판 위에 도착해서 말을 꺼냈다. “무섭지 않아? 아래를 보고 건너다니, 대단하다.” “연못 안에 예쁜 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발견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도 못한 깜찍한 대답에 그저 웃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멋진 생각이다. 예쁜 돌 대신 꽃은 어때? 저길 봐, 연못에 뜬 분홍색 수련이 여기서도 보인단다.” 발 밑을 물끄러미 보던 아이가 수련을 발견하고는 ‘우아’ 하고 작게 탄성을 지른다. 어른과 아이의 눈높이가 같아진다. 돌만의 기억이 연못에 스르르 녹아든다.



표는 정상에 향해 뺨은 쪽이다. 정상까지 오를 생각을 하니 아득하다. 그래도 저 앞에 서서 얼른 오라고 손짓하는 아이의 모습에 힘을 낸다. 훗쩍 자란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 준다. 도덕산의 진짜 모습은 여기부터다. 해발 200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산이라 운동 삼아 산책하는 사람도 더러 다닌다.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던 산새가 몇 걸음 위 계단에 보란 듯이 앉는다. “쉿, 저기 새가 앉아서 깃털을 다듬어요. 목욕하는 걸까? 친구 만나러 가나?” 몸을 낮춘 아이는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작은 새의 몸짓 하나에도 궁금한 것이 가득이다.

숨은 폭포 찾기

정상에 가까워진 것인지 나뭇잎 사이로 들이치는 햇빛이 강하다. 계단 끝에 나타난 것은 두 갈래 길.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와 상의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등산객이 오른쪽은 인공 연못으로 이어지고 왼쪽엔 출렁다리에 오르는 길이 있다고 알려 준다. 선택은 아이의 몫이다. 양쪽 길

을 놓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쪽이다!” 말하고는 오른쪽으로 뛰어간다. 달려가는 아이 등 뒤로 배추흰나비 몇 마리가 나풀거리며 따른다.

길 끝에 다다르니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제일 먼저 손님을 맞는다. 수련이 핀 연못과 연못으로 떨어지는 폭포, 그리고 위는 Y자형 출렁다리가 장식했다. 지난해 8월에 개통한 Y자형 출렁다리 와 인공 폭포가 그려낸 그림이다. 높이 20미터에 설치한 다리는 세 갈래로 나뉘고, 그 길이를 모두 합하면 100미터에 달한다. 강철로 만들어 성인 640명이 동시에 통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니, 나무 울타리에 바짝 붙어 연못과 폭포를 번갈아 보던 아이가 갑자기 출렁다리 위로 올라가야겠다고 선언한다.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정말로 실험하려는 건지 물어보려는데, 다시 벌써 저만큼. 배추흰나비를 대신해 쟁걸음으로 아이를 쫓는다.

출렁다리까지 앞으로 한 걸음. 다리 밑에서 바라볼 때보다 길이가 더욱 길어진 듯한 기분은 착각일까. 이 순간은 아이도 긴장되는지 맞잡은 손에 힘을 준다. 느릿한 속도로





일제강점기부터 1972년까지 광부들이
자원을 캐던 광산은 광명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 여행지가 되었다.
연중 평균온도가 12~13도여서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좋다. 문의 070-4277-8902

이 계절의 열기는 한낮이 되면 더욱 강해진다. 잠시 더위를 피할 요량으로 시원한 곳을 찾는다. 다행히 광명에서 만 가능한 특별한 피서법이 하나 존재한다. 그 방법을 온몸으로 만끽하러 가학산 방향으로 달린다.

신비한 광명동굴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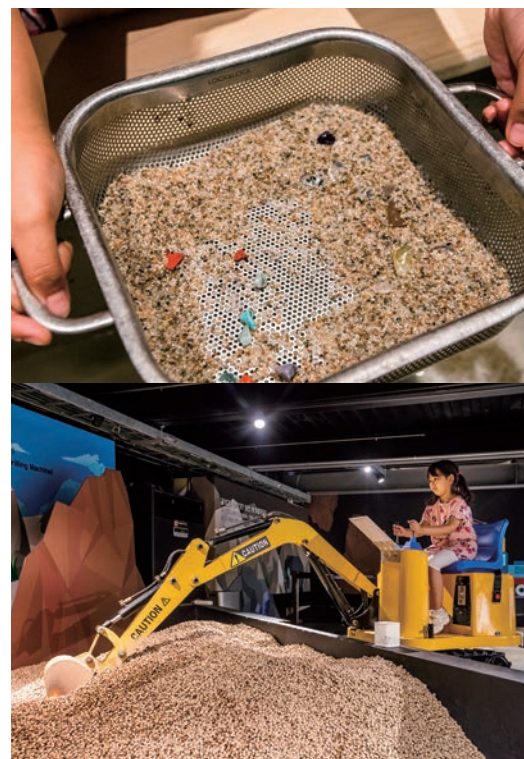
가학산 위쪽에 자리한 광산은 1912년 일제강점기에 문 열고 1972년 폐광될 때까지 광부들이 금, 은, 아연 등 각종 자원을 캐던 곳이다. 광산은 2012년 광명동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여행지로 거듭나 방문객을 부른다. 이제 동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싼다. 언제 더웠냐는 듯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양옆에 맑은 지하수가 졸졸 흐른다. 무심코 동굴 벽면을 손으로 훑자 물기가 축축하다. 천장과 벽면에도 지하수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걷는 동안에는 천장에서 종종 물방울이 떨어지니, 땅속 동굴에 들어왔음을 실감한다.

오래 걷지 않아 좁은 길이 탁 트이고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오색찬란하게 빛을 내는 조형물 덕에 꿈나라에 온 것 같다. 동굴은 빛 조형물을 설치해 밝게 빛나는 '윙홀광장', 반짝이는 금으로 뒤덮인 콘셉트로 꾸민 '황금동굴', 350명에 달하는 관객을 수용하는 공연장 '예술의전당' 등 옛 동굴 모양을 최대한 보존해 다양한 공간과 볼거리를 만들었다. 처음 맛닥뜨리는 광경에 아이는 폴짝폴짝 뛰어오르기 바쁘다. 그중에서도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은 '동굴 아쿠아월드'다. 동굴에 흐르는 1급 암반수를 이용해 다양한 민물고기를 관찰하도록 했다. 아이는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각종 물고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동굴의 평균온도가 12~13도로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와인을 숙성하는 장소도 존재한다. 아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어른에게는 달콤한 와인 한 잔까지 선물하니 동굴을 나오는 여행자의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 찼다. 광명동굴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동굴 밖 '라



C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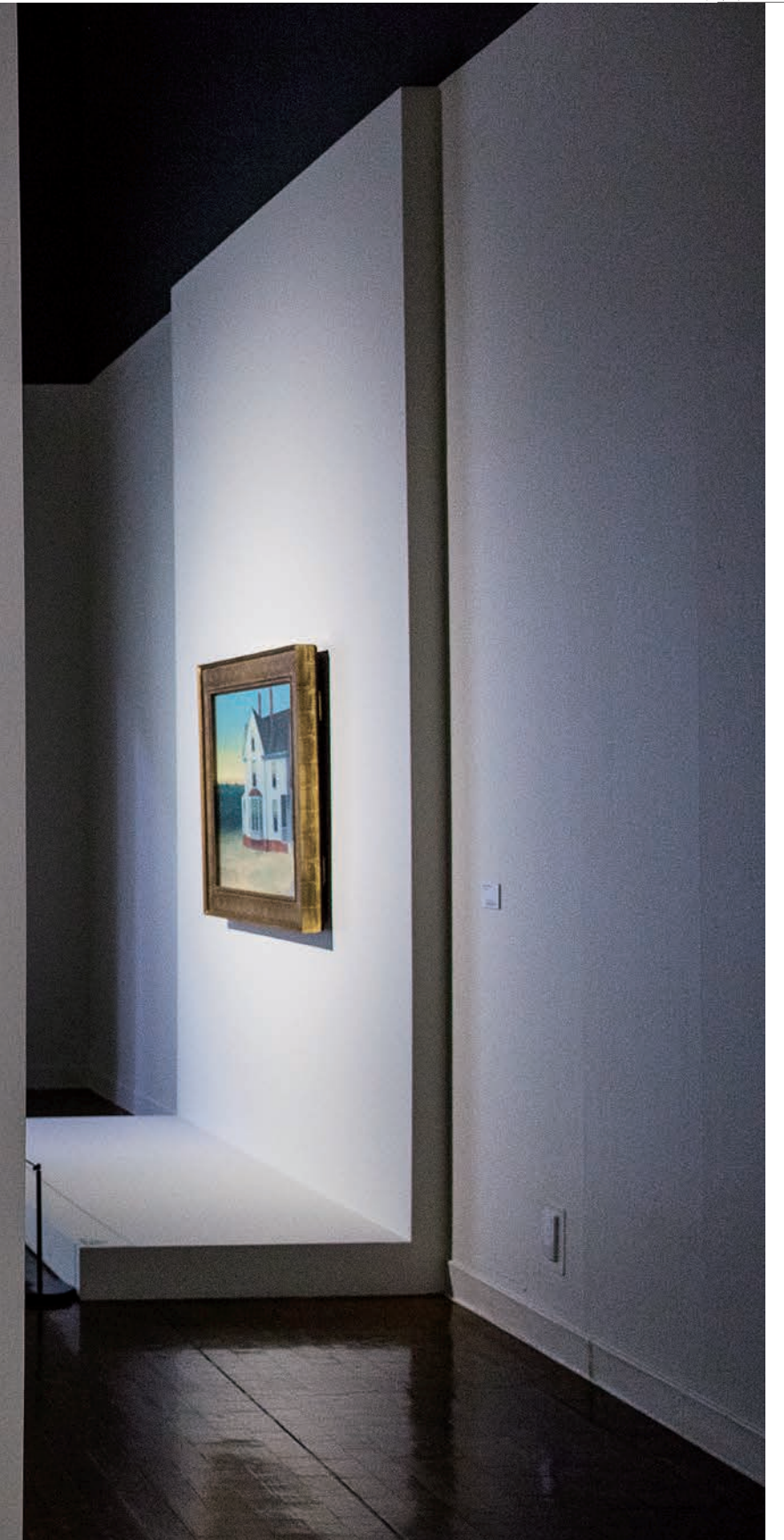
스코 전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광명동굴에서 직접 채굴한 광물을 관찰하고, 꼬마 원정대가 되어 포클레인 모형을 조종해 본다.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체험은 '빛나는 보석 찾기'. 바닥에 구멍이 뚫린 패닝 접시에 모래를 잔뜩 부은 다음, 접시 손잡이를 잡고 물에 넣어 살살 흔들면 알갱이가 큰 보석은 표면에 남고, 모래는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것 봐요! 진짜 보석을 찾았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손톱만 한 보석을 집어 빛에 이리저리 비춰 보더니 소중한 듯 손에 꼭 쥐다. 이곳에서 발견한 천연 보석은 체험을 마치고 가져가도 좋다. 보석만큼이나 반짝이는 추억이 마음 안에 몽글몽글 맺힌다. 기차로 시작한 여정을 다시 기차로 끝맺을 시간, 걷는 내내 재잘대던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자마자 꾸벅꾸벅 졸다 잠들었다. 하루 여행이 어땠는지 묻지는 못해도 동그란 얼굴에 띠 얹은 미소 덕에 짐작이 간다. 꿈에서도 즐거운 여행이 이어지기를. 아이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하루가 저문다. **㉠**

미술관에 간 날



길 위 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에드워드 호퍼의 대형 개인전을 연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위대한 화가지만, 직접 보고 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화가가 될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처음 문을 열고 2002년 현재 자리로 옮겼다. 1920년대 지은 옛 대법원 앞부분을 살린 건물 자체도 아름다우며, 덕수궁 돌담길 옆이라 관람 전후 산책하기도 좋다. 문의 02-2124-8800

화가의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치켜떴다. 거친 선으로 그은 작은 스케치임에도 자화상에서는 그의 고집스러움, 도전 의식, 불안함 같은 내면의 단어가 흘러나왔다. 자화상 옆과 아래에는 손을 그렸다. 무언가를 잡은 손, 어딘가를 짚은 손, 필기구를 잡은 손, 허공에 놓인 손. 언제든 모델 삼을 수 있고 기본기를 익히기에도 유용한 존재들. 1900년경 스케치라 하니 아직 10대 시절이다. 미래란 항상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은 단어이나 열여덟 살 화가 지망생 에드워드 호퍼에겐 두려움이 더 우세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내일이 기다리는지 불확실한 오늘, 그는 자신의 모습과 손을 스케치했다. 이 습작이 한 발 한 발 그를 생의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므로. 시간이 충분히 흘러 그가 어떤 길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갔는지 아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시장을 찾아 열여덟 소년의 출발점에 섰다. 위대한 화가의 시작은 평범하게도 종이에 펜, 잉크, 연필, 콩테였다.

습작과 청춘 시절 작품이 건네는 말

호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시는 7개 섹션으로 나뉜다. 화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에드워드 호퍼'부터 그가 여행하거나 머무른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지역' '케이프코드' 같은



지역 이름을 거쳐 동반자인 '조세핀 호퍼'를 짝고 '호퍼의 삶과 업'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다. 첫 번째 구역 '에드워드 호퍼'에서는 스케치와 자화상, 그가 살았던 공간을 그린 작품을 모았다. 초기작은 물론 1943년, 육십이 넘어서도 손을 묘사한 스케치가 함께 놓였다. 화가로서 성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스케치는 대표작 몇 점 가지고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각각 다른 나이대의 자화상도 인상적이다. 화가는 대체 얼마나 용감하기에 자기 자신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일까. 그림이 무언가를 전달한다면, 관람객이 자화상 속 화가에게서 무엇을 볼 줄 알고. 그림에도 화가는 표정을 정하고 붓을 든다. 화가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의 방식. 이 고백 내용을 들으려 화가와 오래 눈을 마주쳤다.

삶의 방향을 그림으로 정한 미국 태생의 호퍼는 당시 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를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세 번 방문한다. 이때의 경험과 기억이 '파리' 섹션을 이루는데, 인상파를 연상시키는 풍경화에서 빛의 효과를 모색하고 고유한 구도를 찾아나가는 흔적이 드러난다. 20대,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하루는 선명해졌다가 다음 날은 좌절하고 다시 의지를 다졌을 날들. 그림을 보면서 대가의 20대 청춘을 상상한다. 이 역시 '대표작'만 들여온 전시장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상이다. 물론 파리 풍경이나 실내를 표현한 그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파리를 세 번 여행한 호퍼는 세 번 돌아왔고, 미국 뉴욕에 평생 정착한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호퍼의 작품이 펼쳐질 참이다.

우리는 모두 고독하다는 진실

생계를 위해 호퍼는 잡지와 광고 삽화 작업을 하며 동판화에 관심을 갖는다. 당시 미국은 고층 건물과 철도 등을 한창 짓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고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휴일엔 기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 호텔에 머물렀다. 새로운 일상, 낯이 변화하는 도시. 호퍼는 길 위에서 도시와 사람을 응시했고, 고가 전철에 올라 이전과 달라진 눈높이로 관찰하기도 했다. 이를 새긴 판화가 '뉴욕' 섹션 초입을 장식한다. 1921년 작 '밤의 그림자'는 동판화의 흑백이 빚어낸 빛과 그림자가 과감하고도 드라마틱한 구도를 완성한다. 크지 않지

분명 그림에 빛이 들건만
희망차기보다는 고요하고
기묘한 느낌이 흐른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저 밑바닥에
꼭꼭 눌러 두고 외면한 고독이
호퍼의 빛 아래서 드러난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이
떠오른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에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전을 열고 있다.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드로잉, 판화, 유화, 수채화 160여 점과 사진, 편지 등 자료 110여 점을 일곱 개 섹션으로 나누어 선보이는 대형 전시다. 20세기 초·중반 변화하는 세계를 담은 그림은 소재가 풍경이든 인물이든 하나하나가 시간을 넘어 오늘날 바로 우리의 초상이기도 하다. 기간은 8월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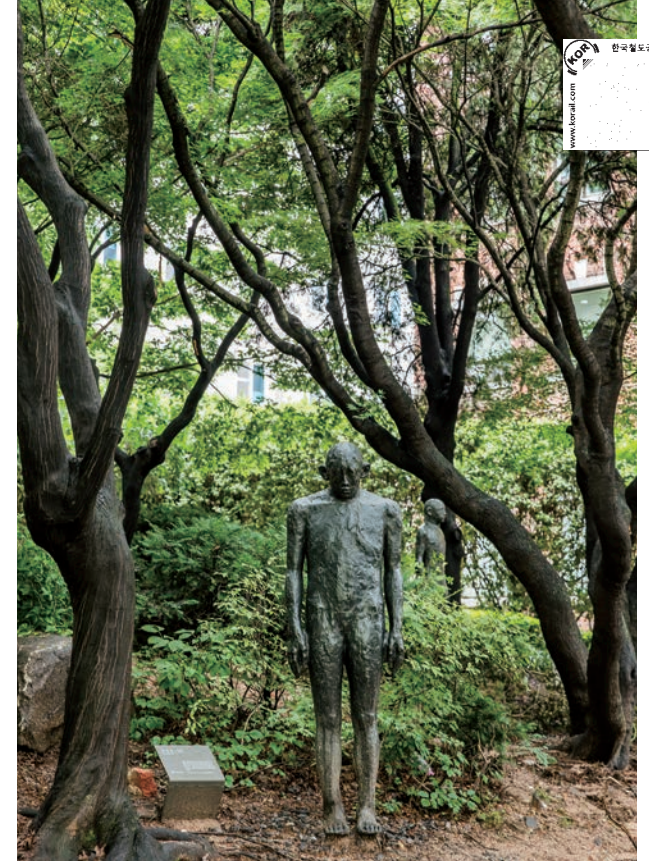
만 그 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관람객을 빨아들이는 작품이 호퍼의 그림 세계를 예고한다. 높은 곳에서 저편의 건물 실내를 엿보는 듯한 1928년 작 '밤의 창문', 어두운 시각에 건물과 그 뒤의 숲까지 함께 담은 1935년 작 '황혼의 집' 등이 이어진다. 빛과 어둠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인물은 등장하더라도 그림의 주인공이 아닌 익명의 누군가가 된다. 그렇기에 나, 너, 누구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존재. 호퍼는 휴양지인 케이프코드를 매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남긴 1948년 작 '오전 7시'나 1960년 작 '2층에 내리는 햇빛'도 같은 분위기다. 분명 빛이 들건만 희망차기보다는 고요하고 기묘한 느낌이 작품에 흐른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저 밑바닥에 꼭꼭 눌러 두고 외면한 고독이 호퍼의 빛 아래서 드러난다. 호퍼가 어떤 번듯한 풍경을 그렸더라도 관람객은 단순히 그림의 피사체를 넘어 심연을, 이 세상과 사람의 외로운 본질을 맞닥뜨린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이 떠오른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프고 뜨겁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도발하듯 외치는 작품이 강렬하다. <80 도시 현실>은 가나아트기증 작품과 미술관 소장품에서 1980년대 도시 현실과 도시인을 주제로 한 21점을 모았다. 김정현·민정기·이상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급격한 도시화로 변해 가던 시기에 도시, 자연, 사람을 자기만의 눈으로 응시하고 해석한 작품들이다. 이 해석은 1980년대에나 지금이나 귀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예술은 알려 주고, 알아준다

무엇이 그림이 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길 위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지나친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대화나 기록할 거리로 남고 어느 것이 버려지는가. 호퍼의 소재는 평범한 극장·식당·집·호텔·가게·사무실·기차와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해도 작품이 관람객과 만나는 데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마흔 넘어 결혼한 호퍼의 아내 조세핀 니비슨 호퍼는 그의 훌륭한 조력자였다. 역시 화가였던 그는 내향적인 남편 대신 외부 인사를 상대하고 미술계와 연결해 주었다. 호퍼의 작품을 일일이 장부에 정리했고, 호퍼의 그림에 등장하는 대부분 여성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느라 본인의 화가 인생은 접어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여섯 번째 섹션 '조세핀 호퍼'에 전시한 1961년 작 '햇빛 속의 여인'은 아내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을까. 20세기 초·중반, 나 자신보다는 '화가의 아내'로 살아간 여성의 삶을 짚어 본 뒤 마지막 일곱 번째 섹션에서 호퍼의 삽화와 다큐멘터리를 관람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세 개 층에 85년을 살다 간 화가의 65년에 걸친 예술 세계를 충실히 압축해 놓았다.

언제나 아름답고 영원히 유효할 작품들

미술관 2층에는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전과 <80 도시 현실>전을 진행 중이다.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전은 자신의 그림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백이 기증한 작품 93점 중에서 20여 점을 추려 선보인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렇게 슬



호퍼는 평범한 일상을 관찰해 그 안의 쓸쓸함을 그림에 옮겨 왔다. 고독한 우리는 그의 그림에 고인 고독을 보면서 위로받는다. 세례를 받듯 예술의 기운이 마음을 씻어 준다.

그곳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림에 담은 본질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에서 문득 낯설어진 풍경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되뇌는 질문이다. 길 위에 나서서 평생을 관찰해 존재의 고독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호퍼. 그렇다고 작품이 마냥 쓸쓸하지는 않다. 어쩌다 잠깐 고독했던 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리 없다. 내 깊은 데 덮어놓고 모른 척하던 구석을 알려 주고, 알아주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샤워하듯 세례 받듯 예술의 기운으로 마음을 씻고 나오는 길, 배형경·이우환·최우람 작가 등의 야외 조각 작품이 미술관과 바깥세상의 경계에 서서 배웅한다. 오늘이라는 길 위에서는 또 무엇이 그림이 될까. 일단 성실하게 연필부터 칠 일이다. **㉸**



서해선 열차 타고 반차 여행

여름 한낮, 서해선에 몸을 싣고 경기 서부를 종횡무진 누빈다. <KTX매거진> 편집팀 사무실에서 출발해 부천 원종역과 시흥 신현역을 경유하는 '반차 여행'을 떠났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여행 또는 이동을 의미하는 단어 '트래블(travel)'은 고생, 고역을 뜻하는 '트래베일(travail)'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이동과 고생을 전제하는 출퇴근길은, 여행일까? 여기엔 여행의 본질인 '탈일상적 감각'이 부재하다. 물론 반복되는 '집-회사-집' 패턴에서 몇 가지 변수만 조작해 일상을 여행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어느 때처럼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아침, 별안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출근길에 맞닥뜨린 서해선 환승 통로 때문이다. 서해선. 서쪽 바다의 이미지가 어른거리는 이름에서 묘한 해방감이, 쾌감이 느껴진다. 퇴근하는 길엔 연두색 화살표가 이끄는 대로 열차에 올라 멀리, 더 멀리까지 가 볼 작정이었다. 소박한 상상을 현실로 앞당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휴가계를 낸 뒤 자리에서 일어선다. 사무실 근방인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해선 환승역인 고양 능곡역에 내린다. 환승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다. 역무실에서 서해선 2단계 개통 기념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소사-원시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2023년 7월 대곡-소사 구간 개통을 축하하는 교통카드이자 '철도 굿즈' 말이다. 이제 카드를 손에 쥐고 개표구를 통과해 승강장에 설 차례다. 노선을 죽 훑어보다가 유독 낯선 이름을 가진 두 역을 발견한다. 경기 부천 원종역과 시흥 신현역이다.

서해선 Seohae Line



서해선 타고 떠나요

서해선은 경기 고양 일산역부터 충남 홍성 홍성역까지 잇는 간선철도, 광역철도 노선이다. 2018년 6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 대곡역부터 안산 원시역에 이르는 수도권 전철 구간이 개통했으며 8월 말에는 대곡역에서 서해선 시발·종착역인 일산역까지, 2024년 6월에는 원시역에서 홍성역까지 이어진다. 서해선을 따라 더 풍성한 여행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S11 대곡 S12 능곡 S13 김포공항

S14 원릉

S15 부천종합운동장 S16 소사

S17 소새울 S18 시흥대야 S19 신현

S20 신현

S22 시흥시청

수주문학관

문학 도시 부천의 재발견

나무 수(樹), 고을 주(州). 경기도 부천의 옛 이름은 수주다. 계양산 북쪽 수소리라는 마을이 밀림처럼 울창해서 그리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읊었을 시 '눈개'를 쓴 문인 변영로의 호 또한 수주다. 1898년 당시 한성(서울)에서 탄생한 그의 원적지가 바로 부천 고강동이라서다. 그는 선친의 땅을 아호로 삼았을 만큼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 큰 인물이었다.

서해선 원릉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주문학관이 있다. 부천시는 수주 변영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고강선사유적공원 안에 수주문학관과 수주도서관을 세워 올렸다. 여기엔 고강선사유적체험관과 고강시민학습원도 함께 자리해 여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이룬다. 건물은 크게 도서관동과 문학관동으로 나뉜다.

수주문학관은 수주의 문학적 생애는 물론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 변영로의 삶을 두루 반추한다. '천재의 고향, 펜을 들다' '민족의 울분, 기록하다' '지조의 문인, 마음을 울리다' '수주의 흔적, 정신을 이어받다'로 이어지는 전시실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한 예술가의 '인생 극장'을 관람한 기분이 든다.

내밀한 즐거움도 있었다. 수주와 나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놀이다. 공통점 하나, 편집자로 일했다는 것.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던 잡지 <신가정>의 편집자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마라톤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기념사진을 다리만 확대해 '조선의 건각, 세계를 제압한 다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일장기를 단 상반신을 의도적으로 자른 게 아니냐는 일제의 협박을 받았으나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넘겼다고 한다. 공통점 둘, 애주가라는 것. 수주는 자신의 음주 역정을 기록한 수필집 <명정 40년>을 펴냈다. 책에는 그가 종로 일대의 다방 다섯 곳을 전전하면서 위스키를 한 잔씩 들이켜고 글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아무렴, 텍스트와 알코올만큼 정다운 벗도 없을 것이다.

문학관을 나서는 길엔 수주의 시를 필사하도록 엽서와 펜, 색연필을 올려 둔 책상이 놓였다. 그곳에 잠시 걸터앉아 수주의 시 '서 대신에'를 손으로 눌러 써 보았다. "조선의 마음을 어디 가 찾을까 / ... (중략) ... / 조선의 마음은 지향할 수 없는 마음, 설운 마음!" 느낌표에 아로새긴 시인의 슬픔을 오늘의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여름 한복판, 문득 가슴이 시렸다.

수주문학관, 수주도서관

가는 법 서해선 원릉역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수주문학관에 닿는다. 2번 출구에서 8번, 23번, 50-1번, 70-2번, 75번 버스를 타고 세 정류장을 이동해 수주도서관에 하차하면 약 10분이 소요된다.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8번길 77 ☎ 032-625-4330



관곡지

연꽃 향기 그윽한 시흥의 역사

수국, 능소화, 백일홍도 좋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름 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연꽃이다. 수면에 훌쩍히 피어난 연꽃을 마주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수선하던 머릿속도 단숨에 맑아진다. 생김새도 아름다움도 얼핏 비슷비슷해 보이는 연꽃이건만 종류는 수없이 많다. 조선 전기 문신 강희맹은 중추원부사를 지내던 시절 진현부사로 명나라 난징에 갔다가 전당홍이라는 품종의 연꽃씨를 들여와 연못에 심어 길렀다. 연못 이름은 관곡지. 오늘날 경기 시흥시와 강희맹의 사위 가문인 안동 권씨 문중에서 보존해 온 향토 유적이다.

시흥시는 관곡지의 역사와 가치를 더 많은 이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주변 18만 제곱미터(약 5만 5000평) 부지에 드넓은 연꽃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늦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여러 종류의 연꽃을 식재했다. 서해선 신현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 펼쳐진 연성동은 바로 이곳 관곡지 연꽃에서 이름을 땄다. 신현역에서 보통선을 따라 동쪽으로 죽 내려가니 연성동의 근원인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에 다다른다. 가로 23미터, 세로 18.5미터의 작은 못 관곡지가 넓디넓은 공원의 관문이다. 잘 닦인 돌담길을 따라 거닐다가 어느새 사람 키만 한 연꽃 군락에 둘러싸인다. 이곳의 연꽃은 자태가 늘씬한 데다 꽃잎 끝부분이 열린 분홍색을 띠어 시선을 홀린다.

꽃과 키 재기를 하느라 한창 정신이 팔렸다가 껍뻑, 하고 노래하는 오리 앞에서 기분이 유쾌해진다. 공원에는 연꽃만 살지 않는다. 연꽃은 물양귀비와 파피루스 같은 수생식물에도 곁을 내어준다. 물속에선 개구리·우렁이·미꾸라지·붕어가 헤엄치고, 물밖에선 저어새·백로·왜가리가 날갯짓을 한다.

포르르 날아오른 물닭의 뒤꽂무니를 바라보느라 오랜만에 고개를 든다. 잔뜩 꾸물거리던 하늘이 점차 맑아지더니 이내 노랑게, 불그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한다. 시침이 6을 가리키는 때, 사무실에 있었다면 못다 한 일을 덮어 두고 부라부라 퇴근길에 올랐을 즈음이다. 탈일상의 시간은 왜 그리 바빠 흐르는 걸까. 한참을 돌고 돈 퇴근길이 짧게만 느껴진다.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가는 법 서해선 신현역 1번 출구 쪽 버스 정류장에서 31-3번, 61번, 63번, 530번 버스를 타고 동아아파트에서 하차하면 약 5분이 걸린다. 여기서 관곡공원 방향으로 걷다가 관곡지로에 접어들어 5분 정도 올라간다.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08 ☎ 031-310-6184

VISIT
KOREA
YEAR



여름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청량한 물소리가 들리는 바다와 계곡으로 가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졌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향하거나 호텔에서 '호캉스'를 보내는 이, 농어촌에서 '촌캉스'를 체험하는 사람도 늘었다. 몸과 마음이 들쭉여도 어딘가로 떠나지 못하고 집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이도 물론 존재한다. 헛되이 넘길 수 없는 꿀 같은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해외 콘텐츠 속 한국 찾기를 제안한다.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을 보다가 한국의 풍경이나 한글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아예 한국인을 해외 작품에 캐스팅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10~2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콘텐츠 속 한국은 다른 모습이었다.

007이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다룬 영화 <007 어나더 데이>부터 살핀다. 작중 북한과 DMZ가 언급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반갑고 신기한 일이지만, 제작진은 무지했다. 물소가 등장하거나 동남아시아에서 볼 법한 수상 가옥이 나타난다. 게다가 함경남도 앞바다에서 서프보드로 집채만 한 파도를 타며 북한에 잠입하는 장면도 나온다. 고증이 이러한데 대사는 어떨까.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등장인물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탄생한 "페이퍼 타워리 요기 잉네"는 웃기기도 슬픈 명대사가 되었다.

한국이 발전하고, 세계에 한국 콘텐츠가 퍼져 나가면서 해외 콘텐츠 속 한국의 모습은 달라진다. 2017년 개봉한 공상과학영화 <콜로설>에서는 한국이라는 설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에 사는 주인공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대 괴수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줄거리로,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던 것과 달리 높은 빌딩이 즐비한 현실의 서울을 묘사한다. 인간 축소 기술을 개발한 세계를 상상한 영화 <다운사이징>에서도 서울 강남과 노량진 수산시장의 풍경을 현실과 매우 비슷하게 반영했다. 묘사, 반영의 다음 단계는 로케이션 촬영이다. 전 세계적인 팬을 보유한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서울의 세빛둥둥섬 등 두 번이나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했고, 이 외에도 여러 작품이 속속 한국을 찾는 중이다. 알고 보면 더욱 흥미진진한 해외 콘텐츠 속 한국, 지금 바로 만난다. **1**

The ways to spend summer vac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While going to the beach and valleys to enjoy the refreshing sound of water has been considered traditional, there are now more people who choose to fly to other countries or indulge in luxurious hotel "staycations." Of course, there are also those who have to spend their vacations at home. If you are pondering how to make the most of your precious leisure time, I propose discovering Korea in overseas content.

While watching movies, dramas, and other content produced abroad, you often come across Korean landscapes or the Korean language. Until 10 to 20 years ago, Korea depicted in overseas content looked quite different. Starting with the movie *Die Another Day*, where 007 carries out a mission in North Korea, scenes set in North Korea and the DMZ were intriguing for Koreans, but the production team had little knowledge about Korea. Cows appeared, and waterfront houses resembling those found in Southeast Asia were seen. There was even a scene of riding a surfboard on waves crashing against the coast of Hamgyeongnam-do Province while infiltrating North Korea. Over the years, the portrayal of Korea has changed with its global influence. The 2017 science fiction film *Colossal* revolves around a gigantic monster that appears in the heart of Seoul and imitates the actions of the protagonist, who lives in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early 2000s when there was little understanding of Korea, it depicts the reality of Seoul, filled with high-rise buildings. The American media franchise *Marvel Cinematic Universe* has filmed in Korea twice, using locations like Sevit Dungdung Island in Seoul. Read on for more on how Korea has been portrayed in overseas content. **1**

한국 찾아 떠나요, 비디오 바캉스

다가오는 휴가, 멀리 가지 않아도 좋다. 해외 콘텐츠에 담긴 한국을 찾아 영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MOVIE

<블랙팬서> #부산 광안대교 등



우주 최강의 금속 비브라늄을 품은 나라, 와칸다. 와칸다의 왕 트찰라와 그의 연인 나키아, 정예 호위 기사 오코예는 비브라늄을 가지고 달이나 숨어 버린 악당 울리시스 클로를 체포하려 한국으로 향한다. 부산 자갈치시장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울리시스를 발견하고, 부산 시내와 광안대교를 질주하며 시원한 추격전을 벌인다.

King T'Challa of Wakanda and his crew head to Korea to apprehend the villain Ulysses Klaue, who escaped with vibranium. They discover Klaue in an illegal gambling den in Busan's Jagalchi Market and engage in a thrilling chase through the streets of Busan and over the Gwangandaegyo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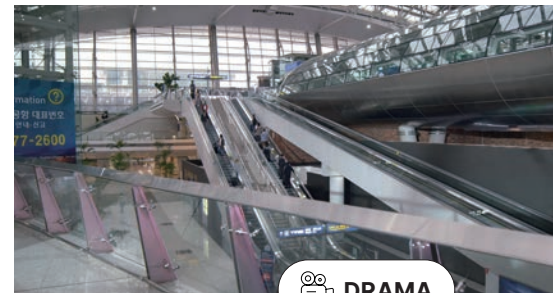


MOVIE

<라이스보이 슬립스> #강원도 양양 현북면

1990년대, 소영은 아들 동현을 홀로 키우기 위해 낯선 캐나다로 떠난다. 새롭게 출발하고자 삶의 모든 것을 바꾸지만 둘 사이는 멀어져 간다. 소영에게 찾아온 인생의 변화 앞에 두 사람은 마지막일지 모를 한국행을 결심한다. 청소년이 된 아들과 어머니는 그들의 뿌리를 찾아 강원도 양양으로 향한다. 감독의 고향인 양양 현북면에서 촬영했다.

In the 1990s, So-young leaves for Canada to raise her son Dong-hyun. Despite changing everything for a fresh start, they grow apart. Faced with a life-altering change, So-young and Dong-hyun decide to embark on a trip to Korea. They journey to Yangyang, Gangwon-do Province, to find their ro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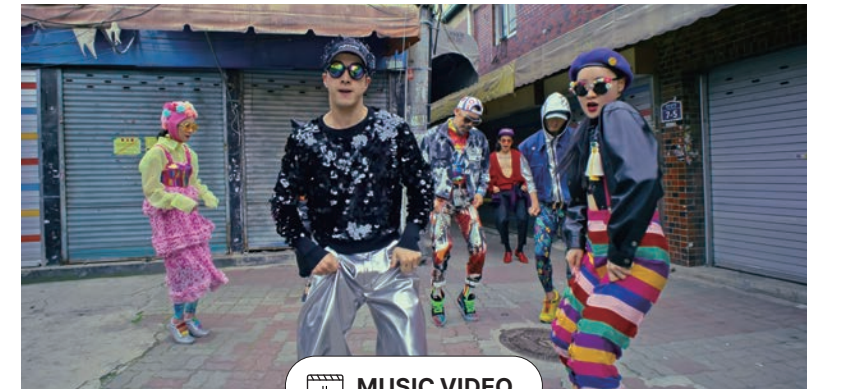


DRAMA

<엑스오, 키티> #인천국제공항

키티는 어머니의 모교인 한국 국제 학교로 전학 가는 게 꿈만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공항에 오자마자 학교로 가는 셔틀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인천국제공항을 안내하는 AI 로봇 '에어스타'와 인사를 나누고, 셔틀버스를 타지 못하는 장면 모두 인천국제공항이 배경이다. 이 외에도 서울 DDP, 롯데월드타워 등이 드라마에 등장한다.

Transferring to th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her mother's alma mater, feels like a dream to Kitty. However, upon arriving at the airport, she misses the school shuttle bus. The scenes of interacting with the AI guide robot AirStar and missing the shuttle bus all take plac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MUSIC VIDEO

<하이어 파워(Higher Power)> #서울 청계천, 을지로 등

영국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2021년 발표한 '하이어 파워'의 뮤직비디오 댄스 버전을 한국의 현대무용 단체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컬래버레이션해 서울에서 촬영했다. 출연진은 노래에 맞춰 청계천, 을지로, 시장 등 곳곳에서 흥겹게 춤을 춘다.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을 격려하는 내용과 활기 넘치는 안무가 잘 들어맞는다.

British rock band Coldplay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group Ambiguous Dance Company to create a dance version of their 2021 release "Higher Power." The music video was filmed in various locations in Seoul, including Cheonggyecheon Stream and Euljiro.





여름에 떠나는 정원 여행

산림청이 100곳이 넘는 국가·지방·민간정원 정보를 지도로 만들었다. 시원스러운 풍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정원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힐링파크 썩섬썩섬, 울산시정, 강화군 화개정원사임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_국가정원

태화강은 과거 농업용수 방류로 오염된 강이었으나, 시민이 힘을 모은 덕에 1급수로 다시 태어났다. 이른바 '생명의 강'으로 불리는 태화강 일대가 2019년 한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에 지정되었다. 도심과 맞닿은 이곳은 생태·대나무·계절·수생·참여·무궁화 등 총 여섯 가지 주제의 20여 개 테마 정원이 83만 5400여 제곱미터(약 250만 평)에 걸쳐 펼쳐진다.

주소 울산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문의 052-229-3147



화개정원

인천 강화_지방정원

연산군의 유배지인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개산에 정원이 들어섰다. 올해 5월 정식 개장한 화개정원은 약 18만 본에 달하는 꽃과 나무로 가득하다.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걷고, 전망대에 올라 7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북한 황해도 연백평야와 강화 앞바다를 굽어본다. 아무 생각 없이 휴식할 수 있는 '멍 때리기 존'에도 들른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62
문의 032-932-2336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천안_민간정원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에 들어서면 300여 종의 꽃이 반긴다. 화수목은 꽃·물·나무에서 착안했다. 공작나무와 잣나무 숲은 상쾌하고, 탐라식물원의 야자수와 감귤나무는 제주도에 온 듯한 기분을 자아낸다. 돌을 파고든 난초가 눈길을 끄는 석부작길을 감상한 뒤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잊는다.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175
문의 041-585-4200



힐링파크 썩섬썩섬

고흥_민간정원

물 건너야 닿는 특별한 정원에 간다. '힐링파크 썩섬썩섬'은 전남 고흥군 애도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 정원이다. 이름에 썩섬이 들어가는 까닭은 예부터 애도에 썩이 많이 낫기 때문. 나로도항에서 썩섬호를 타면 단 5분 만에 애도에 닿는다. 전남 1호 민간정원인 이곳에서 별·달·수국정원을 찬찬히 걷는다. 꽃도 아름답지만, 저 멀리 수평선이 보여 가슴이 뵙 뚫린다.

주소 전남 고흥군 봉래면 썩섬길 43
문의 061-833-9211



+ 국가·지방·민간정원 정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분류하며 각각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관리한다.
+ 산림청의 '대한민국 정원 여행' 지도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의 위치와 특징을 안내한다. 문의 www.forest.go.kr

프로모션

강한 체력이 필요한 여름, 보양식 대신 프리주비네이션

불볕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 나기를 준비할 때다. 울여름, 뜨거운 보양식 대신 산뜻한 노화 예방 주사 프리주비네이션에 도전해 본다.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더위가 나날이 이어진다. 여름철에 유독 보양식이 생각나는 건 더위에 맞서느라 기력을 당겨쓰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물에 빠진 듯 무겁게 느껴진다면, 날씨 탓만 하기보다는 체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조언이다. 조 원장은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프리주비네이션이 근본적인 노화 예방에도 주효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최근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개념을 넘어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부연한다. 프리주비네이션이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다.



만성질환과 통증, 미리미리 관리하는 프리주비네이션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고, 일정 시기에 접어들면 노화가 진행된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더위가 아닌 세포 손상, 혈액순환 저하, 단백질 합성 저하로 인한 근육 감소 등 노화 현상과 연관이 깊다. 이런 증상은 당연히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보양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평상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노화 부스터인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힘들게 만드는 통증은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다. 프리주비네이션이 건강관리의 열쇠인 이유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의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분석한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기세포 효과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

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진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할매

YOU ARE WONDERFUL



할매

할매 이즈 백 할머니의 계절

여름, 할머니 생각나는 시절에 두고두고 꺼내 먹을 콘텐츠를 모았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질 때, 나는 할머니의 작은 방을 떠올린다.” 심윤경 작가는 에세이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의 문을 열어 이렇게 썼다. 사랑. 할머니라는 존재만이 베풀 수 있는 평화롭고 담담한 애정이 우리를 길러 낸다. 요 몇 년 새 할머니의 존재감과 입체적인 면모를 고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남다른 지혜, 풍부한 경험, 무르익은 손맛, 빛나는 재치와 통찰로 삶을 관조하는 이들의 모습 앞에서 뼈뺀 마음은 겸손해지고 눈시울은 자꾸만 뜨거워진다. ‘노년 여성’이라는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 우리 시대의 할머니를 만나 볼 시간이다. **㉸**

1 예술 하는 할머니



여든. 화가도, 영화감독도 될 수 있는 나이다. 제주도 선홍마을의 여덟 할매는 그림 90여 점을 직접 그리고 글을 써서 책 한 권을 완성했다. 이들의 그림 선생님이 엮은 <할머니의 그림 수업>이다. 즐겨 입는 옷, 혼자 사는 집, 수염이 부송부송한 옥수수, 젊은 시절에 산 계곡... 삶을 화폭에 옮겨 놓았을 뿐인데, 보는 이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아마 그 속에 고인 세월이 눈에 선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큐멘터리 <작은 정원>은 강원도 강릉 명주동 마을의 할머니 소모임 ‘작은 정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익히다가 영상 촬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좌충우돌하던 이들은 끝내 다큐멘터리 창작이라는 대단원에 이른다. 누군가 촬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내가 가도 기록이 남아 있잖아”라고 응수하고, 곱게 핀 철쭉을 카메라로 들여다보며 “애 고맙다, 또 피어 줘서”라고 읊조리는 할머니 감독님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할머니의 그림 수업>
도서 | 최소연 지음
김영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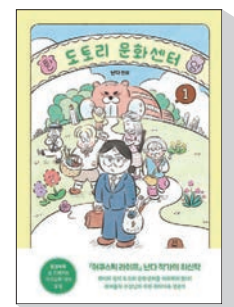


<작은 정원>
다큐멘터리
이마리오 감독

2 취미 부자 할머니



할머니의 취미 생활을 엿본다. 대기업 유니버스 그룹의 야심가 고두리 부장은 프로젝트를 성사하기 위해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 신분을 숨기고 가입, 사군자 수업을 수강한다. 단행본으로 나온 웹툰 <도토리 문화센터 1>의 주인공은 고 부장의 첫 번째 타깃인 사군자 수업 수강생 정중순이다. 평균연령 70세, 조금 수상하고 별난 ‘문선’ 할머니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편 일흔일곱 윤순이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아이돌 그룹 라이트의 노래 ‘어른 아이’를 듣고 사랑에 빠진다. 웹툰 <팬인데 왜요?>는 ‘덕질’이라는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할머니의 성장기를 그린다. 이웃사촌이자 ‘덕질 메이트’ 소진의 독려로 생애 처음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자컨(자체 제작 콘텐츠)’을 시청하기 위해 ‘모이라이브’ 앱을 설치하는 순이의 독백이 오랜 여운을 남긴다. “이게 뭐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지, 할 수 있다고 되뇌며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지.”



<도토리 문화센터 1>
도서 | 난다 지음
문학동네 펴냄



<팬인데 왜요?>
웹툰 | 요나 지음
네이버 웹툰 제공

3 요리하는 할머니



주방 경력 수십 년. 할머니 손길이 닿으면 뭐든 맛있어진다. 경남 진주 시골 마을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임홍순 할머니는 손녀 예하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총동원한 요리 수업을 연다. 레시피 북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는 음식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함께한 사계절의 기록이다. 애호박 샌드위치, 두릅 브루스케타, 텃밭 피자처럼 정겨운 재료로 만드는 서양식 메뉴부터 무떡, 콩죽, 울란처럼 오직 할머니에게만 배울 수 있는 향토 음식을 망라했다.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레시피>는 시간이 흘러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손맛을 영상으로 아카이빙한다. 김영순 할머니의 해삼무침, 홍명옥 할머니의 메밀조베기, 광숙자 할머니의 문어먹장국, 지영자 할머니의 옥수수범벅... 음식 만드는 할머니의 영상을 보노라면 유독 손에 눈질이 있는데, 고운 물결 같은 잔주름에 마음이 일렁인다. 눈물샘과 침샘이 동시에 열리는 희귀한 경험도 하게 된다.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
 도서 | 예하, 임홍순 지음
 수오서재 펴냄



<할머니의 레시피>
 유튜브 채널 @grandmaarchives

4 인간, 여성, 할머니



어린이 입장에서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종종 충격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어른이라고 별 수 없다. 할머니에게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다. 무성적인 존재,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는 신화적 존재에 가깝게 묘사되어 온 중장년 여성의 삶을 남다른 시선으로 응시한 두 권의 소설이 있다. <반에 반의 반>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홉 편은 위장 이혼부터 금연 캠프에 이르는 다층적 사건을 아우르며 나이 든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낸다. 그런가 하면 <없는 층의 하이센스>의 주인공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사귀자 할머니로, 등기부에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남산빌리지 상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손녀 아세로라를 거둔다. 은밀하고 기묘한 사귀자의 인생 역정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의 기구한 삶을 상상하게 한다.



<반에 반의 반>
 도서 | Chun Wonyoung 지음
 문학동네 펴냄



<없는 층의 하이센스>
 도서 | 김멜라 지음
 창비 펴냄

5 목소리 내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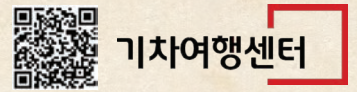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본격 '이야기 구연 서바이벌 게임'을 표방하는 <오늘도 주인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6070 여성이다. 오디션 거쳐 합격한 할머니 예술인 열여섯 명이 뮤지컬, 밴드 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경유해 리드미컬한 이야기극을 선보인다.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그치지 않고, 우승팀을 주요 출연진으로 내세운 전국 순회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는 또 한 명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다. 지난 3·1절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할매 이즈 백>은 그가 <쇼 미 더 머니> 시즌 10 우승자 조광일과 가수 이미자의 노래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 장면을 공들여 보여 준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던 시대여, 이제는 안녕.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할머니의 노래에, 이야기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늘도 주인공>
 TV 프로그램 | 문신애, 송가희 연출
 tvN STORY



<할매 이즈 백>
 TV 프로그램 | 이세진 연출
 MBC



01

한국 미술사를 빛낸 불후의 명작을 다시 보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선일보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올해 서울올림픽 35주년을 맞아 4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다시 보다 : 한국근현대미술전(Re_SPECT : Korean Modern Art)>을 소마미술관에서 개최한다.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장식한 주요 작가 25명의 작품 159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1920년대부터 문화적 대변환의 계기가 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한 한국 화단을 재조명한다.



K O R E A N M O D E R N A R T

다시 보다 한국근현대미술전

02

KTX 편도 + 한국근현대미술전 (서울소마미술관)

여행일	2023년 8월 27일 까지
포함 내역	서울-부산 1인 KTX 편도 승차권 한국근현대미술전 1인 입장권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상품가	73,300원 (출발역에 따른 금액 변동)

03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중섭의 '황소'를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

- KTX 공식 협력 여행사
- 전화 문의 1899-2550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 *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천 코스에 맞추어 여행자가 철도 이용 일정 등을 조정 가능한 자유 여행 패키지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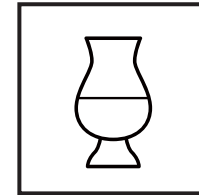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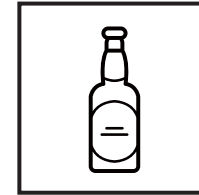
우리가 발베니를 사랑하는 이유

풀에서 배어 나온 듯 부드럽고 우아한 달콤함이 미뢰에서 목구멍으로, 가슴께로 흘러내린다. 웨스틴 조선 서울 라운지앤바 강동희 헤드 바텐더를 사로잡은 위스키, 발베니 이야기다.

THE BALVE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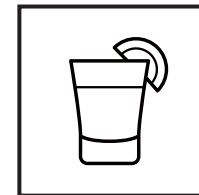
캐스크 피니시로 완성한 품미

“발베니는 윌리엄 그랜트 가문이 글렌피딕 증류소를 세우고 6년이 흐른 뒤 1893년에 설립한 증류소입니다. 증류소 주변에 위치한 동명의 고성에서 이름을 땄죠. 두 증류소는 위스키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업적을 남깁니다. 글렌피딕이 싱글 몰트 시장을 열어젖힌 개척자라면, 발베니는 캐스크 피니시 제조법을 최초로 사용해 복합적인 품미를 완성한 선구자입니다. 발베니의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C. 스튜어트가 개발한 캐스크 피니시는 위스키를 두 가지 오크통에 옮겨 담는 연속 숙성 방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제조한 위스키는 보다 깊은 향미와 입체적인 질감을 지니게 되지요. 엘리자베스 2세는 이 공로로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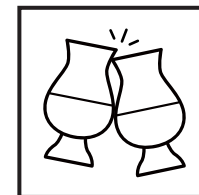
위스키의 맛을 알게 해 준 위스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베니는 더블우드 12년입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유의 품미가 적절히 어우러진, 좋은 밸런스를 지닌 위스키죠. 언제 마시더라도 더블우드 12년에서 느껴지는 건 과일의 향내, 꿀처럼 은은한 달콤함이 저를 기분 좋게 하거든요. 고백하건대, 바텐더라는 직업에 갓 입문한 시절엔 ‘위스키가 맛있나?’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이가 위스키를 소주처럼 즐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근무했던 바조차 노징 글라스가 없어서 샷 글라스에 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발베니를 맛보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달콤함에 매료됐습니다. 그때부터 위스키를 음미한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깨쳤달까요. 그 후로 고객님께도 자신 있게 발베니를 소개하며 추천했습니다. 자연히 맛과 향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왕왕 있었는데, 발베니의 라벨이 요긴하더군요. 제조 과정과 품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기해 공부하기에도, 판매하기에도 유용했습니다.”



여름밤을 위한 발베니 레시피

“좋아하는 친구들과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위스키를 디저트로 즐기는 순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 발베니에 약과를 곁들이곤 해요. 달콤함에 달콤함을 더하는 격이라 우울하던 기분도 순식간에 풀어줄 수 있지요. 발베니는 오직 발베니만으로 오롯하지만, 색다른 맛을 찾아 헤멜 애주가들을 위해 몇 가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기주로 하는 칵테일입니다.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에 스위트 베르무트·오렌지 주스·체리 브랜디를 넣어 ‘블러드 앤 샌드’로, 스위트 베르무트와 앙고스투라 비터스를 더해 ‘로브 로이’로 맛보시길 권합니다. 하이볼로 마신다면 발베니 캐리비안 캐스크 14년이 좋습니다.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 후 캐리비안 지역에서 럼 숙성했던 캐스크에 넣어 다시 서너 달 숙성한 위스키죠. 그 덕에 럼 특유의 스파이시한 맛이 올라오는 매력적인 술이에요. 여기에 진저 비어와 소다를 반반 섞어 마셔 보세요. 레몬 껍질을 살짝 비틀어 올리면 더 화사하고 향긋한 맛이 날 거예요.”



빙하기가 와도, 발베니

“발베니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덮친 재난을 그린 영화 <투모로우>의 대단원에서, 스코틀랜드 기상관측소의 발전기 연료가 끝내 소진되자 누군가가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을 찾아내 이를 연료로 써 보자고 제안합니다. 기상관측소 소장은 “그건 12년 스카치야!”라고 일갈하곤, 발베니를 건배주로 사용합니다. 영국을 위해, 인류를 위해, 맨체스터 유니타이드를 위해 건배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자, 이윽고 펼쳐지는 지구 최후의 순간. 발베니만큼 인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에 완벽한 술도 없지 않을까요.”



강동희 헤드 바텐더
2021년부터 웨스틴 조선 서울 라운지앤바 헤드 바텐더로 근무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맛보다 직관적으로 쾌감을 일깨우는 맛을 좋아한다.





다채로워서, 원주

원주는 강원도 중부 내륙의 거점 도시다. 치악산 등 천혜의 자연뿐 아니라 뮤지엄 산, 한지테마파크, 박경리 문학공원 등 문화 예술이 어우러졌다. 원강수 시장이 다채로운 원주시를 안내한다.

Q. 원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원주시 반곡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원주를 소개해 주세요.

A. 물 맑고 공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맞습니다. 원주는 동쪽으로 치악산 자락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섬강이 흐릅니다.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고장이지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큼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강원감영은 도심에서 만나는 사적지입니다. 어두운 밤이면 더욱 빛을 발하는데, 조명을 받은 선화당 건물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Q. 2021년 11개 코스 전 구간을 개통한 '치악산 둘레길'이 많은 도보 여행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자랑해 주세요.

A. 이름에 '악(岳)'이 들어가는 산은 험하다고들 하지요. 치악산도 그중 하나고요. 하지만 지금은 둘레길을 찾는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치악산 외곽을 견도록 조성했습니다. 도로와 포장길은 가급적 피하고, 흙길·숲길·물길·마을길을 최대한 보존했지요. 아름다운 풍광 덕에 개통 2년 만에 73만 명이 찾는 걷기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오는 9월 2일 원주 트레킹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월 28일과 29일에는 제29회 원주국제걷기대회를 열어 여행객 1만여 명과 함께 단풍 명소로 소문난 치악산의 가을을 누리고자 합니다.

Q.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최근 아이스링크장 조성 계획을 발표해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와 겨울철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A. 아직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민 여러분이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댄싱공연장 내에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물놀이장과 실내 놀이터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 버스킹,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민이 문화 예술 활동을 향유하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여행에서 먹거리도 큰 즐거움이잖아요.

A.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먹고 자란 치악산 복숭아·배, 조업 고구마, 쌀 토토미 등이 원주의 자랑이죠. 황골엿과 치악산 한우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중앙·자유·도래미시장의 만두와 '칼만'도 원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칼만은 칼국수에 만두를 넣어 먹는 음식으로, 원주에서 최초로 사용한 명칭입니다. 원주 사람의 술 푸드인 셈이지요. 올해 10월 28일과 29일에는 만두 축제를 개최합니다. 장인에게 배우는 만두 만들기, 만두 레시피 경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대표 음식인 만두를 모두가 맛보고 즐기는 성공적인 미식 관광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원주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구 36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지요. 원주의 어떤 매력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A. 원주는 여러 가지 식재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음식, 만두 같은 도시입니다. 융합의 고장이지요. 지리상 여러 도시와 인접해 교통이 좋습니다. 5개 대학 교육 시설에 의료시설 등도 잘 갖췄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하는 이유입니다. 원주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위치해 새로운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는 도시라는 점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고 생각해요.

Q.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원주를 대표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출렁다리에 이어 울렁다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곳이 또 한 번 변화할 예정이지요.

A.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18년 개장 이후 400만 명이 방문한 복합 문화 관광 단지입니다. 소금산·섬강·삼산천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고, 출렁다리·울렁다리·소금잔도에서 이슬아슬하고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지요. 저녁에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환상적입니다. 올해 10월에는 길이 285미터의 산악 에스컬레이터가 개장합니다. 2024년에는 케이블카도 도입할 예정이고요. 원주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기대합니다.

Q. 울어름 원주를 찾는 여행자를 위한 휴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A. 이색 피서지로 황장목 숲길을 추천합니다. 짙은 소나무가 울창해 경관이 뛰어납니다. 또 휠체어나 유아차가 지날 수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숲을 누린답니다. 소나무 길을 걸으면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 뮤지엄 산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이외에도 원주의 여름은 풍성한데요, 8월에 치악산 복숭아 축제도 열립니다. 이번 여름 원주를 여행하면서 여유로운 시간과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도로와 포장길은 가급적 피하고, 흙길·숲길·물길·마을길을 최대한 보존했지요. 개통 2년 만에 73만 명이 찾는 걷기 명소로 부상한 이곳에서 9월 2일에 트레킹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PHOTO PICK 원주 여기서 한 컷



도심에 자리한 사적지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공간입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엔 더 찬란합니다. 여름이면 연꽃이 감싼 강원감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주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감영 #연꽃 #사적지 #강원도여행 #원주여행



대전코레일사이클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리다

기차와 사이클의 공통점, 저탄소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철도가 창단한 대전코레일사이클단은 오늘도 금빛 바퀴를 구르며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 김명곤 감독에게 선수단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청했다.



Q. 대전코레일사이클단(이하 사이클단)을 <KTX매거진> 독자님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사이클이란 스포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경기인 사이클은 트랙, 도로, MTB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하자면 트랙은 단거리, 도로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이크 없는 장비로 경사진 타원형 경기장을 주행하는 것이 트랙, 브레이크와 기어가 있는 장비로 장거리 코스를 달리는 것이 도로입니다. MTB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나타나는 산림 도로를 주 무대로 삼는데, 한국에서는 MTB 선수단이 흔치 않은 편입니다. 우리 사이클단은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재능 넘치는 팀입니다. 감독인 저와 방선희 코치 이하 진용식·김현석·주강은·전지환·허승수·주사랑·김용준·이의민 선수까지 열 명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지요.

Q. 사이클단의 평상시 훈련 모습은 어떤가요? A. 대전 월평동에 위치한 사이클 전용 경기장 벨로드롬에서 트랙 훈련을, 충북 방향으로 뻗은 길에서 도로 훈련을, 선수촌 주변 식당산에서 MTB 훈련을 합니다. 일상적인 트레이닝은 가벼운 회복 훈련에서 시작해 코어 운동으로 이어지고, 주 훈련은 여덟 명의 선수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힘과 속도가 뛰어난 김현석·전지환·주사랑·김용준·이의민 선수는 트랙에서, 지구력이 좋고 체형이 날렵한 주강은·허승수 선수는 도로에서 기량을 펼칩니다. 진용식 선수는 아시안패러게임을 대비해 별도의 훈련을 수행하는 중이지요.


Q. 2012년 12월 5일 사이클단이 공식 창단했으니 올해로 1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이클단이 이룬 빛나는 성취를 자랑해 주세요. A. 창단 이래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성과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 도로 종목에서 장경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한국 선수가 남자 개인 도로에서 우승한 것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라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엔 베트남에서 열린 국제사이클대회에서 장지웅 선수가 개인 종합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사이클단에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넷을 안겨 주기도 했지요. 오는 9월 말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안패러게임에서도 김현석·허승수·진용식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창단 멤버인 진용식 선수는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패러게임 1위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전국장애인체전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김현석·허승수 선수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요. 이러한 경기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A. 선수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한국철도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통상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여느 실업팀 선수와 달리 한국철도는 정규직 제도를 운용해서 선수에게 소속감을 심어 주고 훈련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오랜 꿈입니다. 전제는 '부상 없이'입니다. 사이클단이 훈련 전에 외치는 구호가 '안전제일'이거든요.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례로, 30년 경력을 자랑하며 훌륭한 성적을 기록해 온 진용식 선수는 정규직 선수가 되어 한국철도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Q. 한국철도 구성원으로서, 기차와 자전거를 연결한 여행을 상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물론입니다.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여행하기도 했지요. 몇 년 전 서울의 한 동호회 멤버들과 무궁화호에 자전거를 싣고 전남 목포에 집결해 나주역까지 라이딩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사이클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행사여서, 선수들이 직접 안전 교육과 코스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동호인 여러분이 크게 반겨 주셔서 저희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Q. 사이클단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A. 현재까지 사이클 부문에서 한국이 지닌 최고 기록은 올림픽 4위입니다. 우리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제 오랜 꿈입니다. 전제는 '부상 없이'입니다. 사이클단이 훈련 전에 외치는 구호가 '안전제일'이거든요. 언제나 안전을 확보하며 훈련한다고 자부하지만, 속도를 내는 경기이니만큼 부상이 왕왕 발생합니다.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 & 아시안패러게임 국가대표 3인방의 목소리



"선수 생활 하면서 언제나 꿈꿔 왔던 일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오겠습니다."
김현석(트랙)

"최고 경기력을 발휘해 팀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공정하고 품위 있는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허승수(MTB)

"여섯 번째 출전하는 아시안패러게임입니다.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식(아시안패러게임)



(왼쪽부터) 김명곤 감독, 이의민·주강은·진용식·전지환·주사랑·김현석·허승수·김용준 선수, 방선희 코치

Treasure of Korea



가야의 상형토기
- 사슴 모양 뿔잔

주변을 살피는 듯 사슴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긴 목과 다리, 짧고 뭉툭한 꼬리와 역삼각형 머리가 영락없이 노루나 고라니 같은 사슴과 동물이다. 상형 토기란 사물이나 동물 등 모습을 본떠 만든 그릇으로, 주로 신라와 가야에서 사용했다. 장식 위에는 끝을 둥글게 말아 올린 뿔잔을 붙여 곡선미를 더했다. 이 뿔잔에 물이나 술을 담아 의례를 치를 때 사용했으리라 짐작한다. 삼국시대 뿔잔 가운데 동물 모양 장식이 있는 형태는 가야를 중심으로 발견된다. 유연하게 뻗은 굽다리도 가야의 색채를 드러낸다. 예부터 뿔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고,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다. 사슴 또한 신성한 존재라 여겼다. 길한 의미의 뿔잔과 사슴을 한데 모아 만든 것은 상서로운 의미를 배가하기 위함이었겠다. 10월 9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에서 이 토기를 만날 수 있다.



Gaya's Earthenware Figurines
-Deer-Shaped Horn Cup

The deer seems to be turning its head, as if looking around. With its long neck and legs, short and blunt tail, and a head shaped like a reversed triangle, it is undoubtedly a deer. Earthenware figurines, which are vessels made in the likeness of objects or animals, were mainly used in the Silla and Gaya kingdoms. It is speculated that this horn-shaped cup was used to hold water or alcohol for ceremonial purposes. Since ancient times, horns have been perceived as a medium connecting the sky and humans. The horn-shaped cup can be admired at the special exhibition titled *Companions on the Eternal Journey*, which runs through October 9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ZZLE

<수학을 배우는 숨은그림찾기(자연탐구)>

다섯 종류의 숨은그림찾기가 담긴 책으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른다. 똑같이 보이는 쿠키 중에서 다르게 생긴 것을 찾고, 동물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둘러본다. 복잡한 규칙을 풀어나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기쁨도 누린다. 아기가 자라면서 그림 뒤에 퍼즐을 풀고 나서도 자꾸만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해월이 째깍 내리찍는 여름 바다기에서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쌓으며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이곳에는 갈매기와 바다거북 중 누가 더 많을까요?

흰이빨을 가진 친구도 8학년들 찾아봐

조개 8마리를 찾아봐

몸이 가마리를 찾아봐

물고기 6마리를 찾아봐



<송고 SUBLIME>

인간이 송고한 순간은 대개 자연과 이어져 있을 때다. 우주의 형성 과정, 지구를 이루는 원소, 인체와 생태계의 내밀한 모습을 신비로운 조명과 기하학적 패턴으로 형상화하는 몰입형 체험 전시가 펼쳐진다. 서울 성북동에 들어선 뮤지엄 웨이브의 개관을 기념하는 이번 기획전은 영화감독 테런스 맬릭과 음악감독 조니 그린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 '이불버'로 대미를 장식한다.

기간 9월 17일까지 문의 02-3676-8744(서울 뮤지엄 웨이브)

Culture

<백 투 더 퓨처: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하기>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 <백 투 더 퓨처>가 한국에서 개봉한 1987년은 이 땅에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영화와 같은 제목을 내건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정치·사회·문화의 격변기에 등장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공성훈·박이소·이용백·최정화 등 작가 21인을 호명하며, 평면·입체·설치·미디어 작품 33점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기간 2024년 5월 26일까지 문의 02-3701-9500(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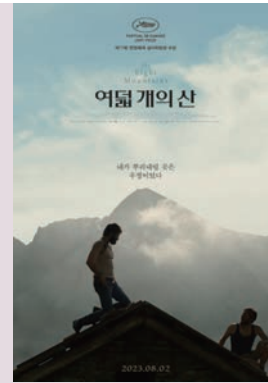
한국 교통의 중심이자 굵직한 역사적 건물의 배경, 서울역.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오갔고, 해방된 기쁨을 누리거나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사람들은 서울역에 모였다. 명절이면 이곳이 얼마나 북적거렸는지. 지금은 문화역 서울284로 변모해 관광객을 맞는 서울역 100년 역사를 예쁜 그림책에 담았다. 정연숙 지음 김고동 그림 키다리 펴냄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저자의 남편은 마흔여덟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팔찌를 찬다. 느린 행동을 불편해하는 이에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라고 새긴 팔찌를 들어 이해를 구한다. 팔찌는 생각지도 못한 필수품이 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탈북민 등을 연구하는 저자가 자전적·반달·사진 같은 사물을 소재로 사람과 사회를 말한다. 글이 따뜻하다. 이향규 지음 창비교육 펴냄

<바람 냄새가 밴 사람들>

의사는 현대의 철학자다. 제주도에서 작은 병원을 하는 저자는 환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왜 아픈가, 어떻게 고칠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해 아픔이 개인만의 문제인가, 삶과 질병과 죽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매 맞는 여성, 동성애자, 세월호 생존자 등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 썼으나 여운이 묵직하다. 전영웅 지음 휴영 펴냄



<여덟 개의 산>

이탈리아 알프스를 배경으로 소년 피에트로와 브루노의 우정을 그린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알프스에서 처음 만난 둘은 여름을 함께 보내고 헤어진다. 성인이 된 피에트로로는 불화를 겪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여덟 개의 산을 떠돌고, 다시 알프스를 찾아 브루노와 조우한다. 장엄한 산을 담은 영상미가 빼어나다. 8월 2일 개봉. 감독 펠릭스 반 그뢰닝엔 출연 루카 마리넬리, 알렉산드르 보르기



<페인킬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의 원인과 그 영향을 파헤치는 드라마 시리즈로, 사실에 기반해 허구로 재구성했다. 약물 옥시코틴을 개발 및 판매해 1990년대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새클러 가문의 만행을 짚는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사연과 진실을 좇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8월 10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피터 버그 출연 우조 아두바, 매슈 브로더릭



<2시 22분-A GHOST STORY>

샘과 제니 부부는 얼마 전 새로 이사한 집에서 한창 인테리어 중이다.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매일 밤 같은 시각, 누군가 2층 침실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음이 제니의 귀에 들려오기 전까지는. 샘은 제니가 신경과민이라 여긴다. 부부는 친구인 로렌과 벤을 집에 초대하고,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새벽 2시 22분까지 깨어 있기로 한다. 재치와 오싹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공포 스릴러 연극이다. 기간 9월 2일까지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000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모티브로 한 창작 발레 공연이다. 작품은 사형을 선고받은 안중근이 중국 뤼순 감옥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김아려, 조마리아, 이시다, 사쿠라 같은 등장인물이 의병부대 전투, 중국 하얼빈 의거 등을 역동적 안무로 재현한다. 한국 역사가 지닌 강인함이 무용으로 피어난다. 기간 8월 25일~26일 장소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문의 031-783-8000



<여자야 여자야>

일제강점기 대부분 여성은 마땅한 이름도 없이 조흔 풍습에 따라 결혼하거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는 등 슬픈 삶을 살다 사라졌다. 이때 '모던 걸'이라 불리며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했다. 안무가 안은미가 치열하면서도 화려했던 신여성들의 삶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단발, 의복과 당시 사람이 사용한 유행어·신조어 등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 현대무용 공연이다. 기간 8월 24일~27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슬기로운 여름 생활, 대전

기차 안에서 매거진을 읽고 대전의 다양한 여행지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밭수목원 기사를 보니 제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소풍을 가기도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김현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꽃처럼 차오르는 영감의 시간, 전남도립미술관

출장 다니며 이용하는 KTX에서 무심코 <KTX매거진>을 펼쳤는데, 전남도립미술관 기사가 눈길을 끌었어요. 여름에 힐링하기 좋은 실내 전시를 찾아서 반가웠습니다. 이곳에서 여유롭게 예술을 즐기고 싶어요.

오수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8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강원도 강릉으로 친구와 우정 여행을 떠났어요! <KTX매거진>을 읽고 다음에는 강원도 춘천에 가서 스탬프 투어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성을 채워 주는 제작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권민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수아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영동선 분천-승부 구간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산 따라 강물 따라'



- 090 한국철도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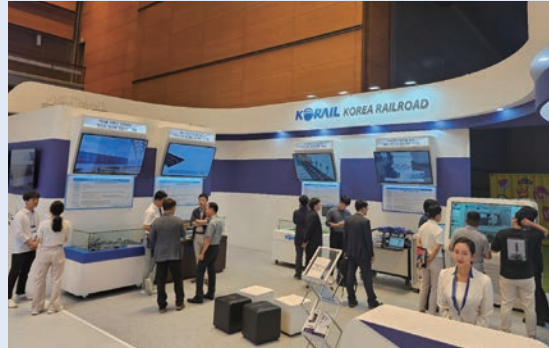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한국철도가 공기업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한국철도 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공인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4월 국정원 주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에서도 146개 국가 공공 기관 중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1



한국철도, 철도 모빌리티 혁신 기술 소개

한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미래형 철도 융합 기술 등을 공개했다. 스마트 유지 보수, 궤도 개량,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철도 인프라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전시 부스에서 소개했다. 인력 위주로 이뤄지던 열차 조성 작업을 전면 자동화한 화물열차 차량 자동 연결 분리 시스템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2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

철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철도는 지난 7월 '승강기 안전하게 타고 기분 좋게 내려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역·부산역·동대구역·광주송정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작동 여부, 과속 조절기 작동 상태 등 승강기 특별 점검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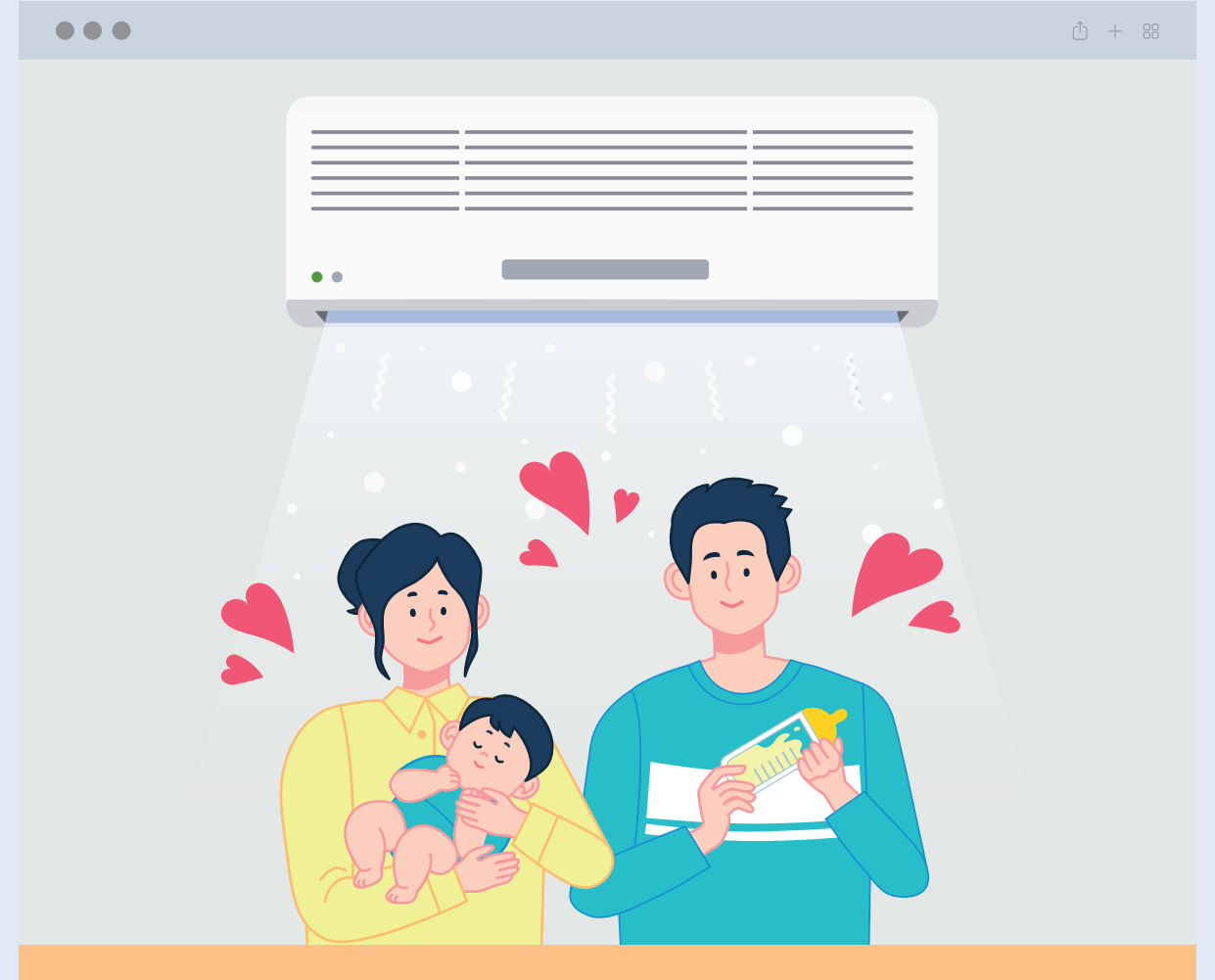
3



뇌사자 장기 이송 최우선으로 돕는 한국철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한국철도가 힘을 보탠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철도가 지난 7월 서울 사육에서 뇌사자 장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KTX 우선 탑승 후 차내 승차권 발권 협조, 이송 관계자 열차 탑승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앞으로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4



한국철도, KTX 46대 수유실에 에어컨 설치 완료 수유실 구조 문제 해결로 영유아 동반객도 쾌적하게 열차 이용

한국철도가 아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지난 7월, 한국철도는 KTX 46대 수유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KTX-산천 등 2010년 이후 운영한 고속열차는 처음부터 냉방 공기가 수유실에 닿도록 만들었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때 도입한 KTX 수유실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만 설치했다. 협소한 공간 등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는데, 프랑스에서 수입한 초기 KTX가 수유실을 설계하지 않아 내부 공간을 개량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협소한

수유실 내에 공기 순환 장치 비치를 시작으로 소음과 바람 세기 등을 고려해 천장 매립형 콤팩트 에어컨을 마련했다. 현재는 온도가 23~24도로 유지되며, 영유아 동반 고객은 에어컨이 나오는 수유실에서 더 쾌적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이번 개선 작업을 거치며 수유실에 풀딩식 출입문과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고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개량해 활용 공간도 넓혔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승객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에 힘써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 한국철도공사 협력전시

역무원 이봉창의 독립운동 이야기

The Story of
Station Worker
Lee Bongchang's
Independence
Activism



전시를 열며

전국 주요 5대 KTX역 순회전시 일정

용산역	강릉역	오송역
8. 4.(금) ~ 8. 20.(일)	8. 21.(월) ~ 9. 3.(일)	9. 4.(월) ~ 9. 17.(일)
부산역	여수엑스포역	
10. 4.(수) ~ 10. 17.(화)	9. 18.(월) ~ 10. 3.(화)	

주최 독립기념관 KORAIL 한국철도공사

※ 전시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 대천역에서 서울 용산역행 표를 구매했던 승객입니다. 당시 저는 지인 여덟 명과 배를 타고 외연도로 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승차권 시간 변경을 요청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실수로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차권 변경이 여덟 장만 적용되었지요. 우리는 나머지 한 장을 달라고 역무원에게 계속 요구했고, 역무원은 누락된 승차권 한 장을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일행의 실수였지만 오랜 시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응대한 역무원이 고맙고 미안해서 다시 역무실에 찾아가 성함을 알아냈습니다. 대천역의 서진주 역무원을 칭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천역 서진주 역무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변경을 요청하신 승차권 아홉 장과 변경이 완료된 승차권 여덟 장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기록했습니다. 확인 과정이 오래 걸려 고객님의 불편하실까 봐 기다리실 수 있는지 여쭙봤을 때 선뜻 양해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는데 칭찬을 받으니 조금은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당시 어려모로 도움을 주신 대천역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천역을 다녀가신 고객님의 모두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2023.08.15 - 08.31

올 여름 여행 '그린카드'에대

KTX 전체노선 그린카드로 예매시 10% 캐시백



서울 ↔ 부산노선 저탄소 제품 인증!

프로모션 참여방법

- 1 행사기간 동안 그린카드로 KTX 승차권 구입
※ 결제 취소 건의 경우 혜택 제공 불가
- 2 결제 횟수 제한 없이 1인 최대 2만원 한도 할인
- 3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익월 내 할인 혜택 제공
※ 대상카드 : BC, KB국민 그린카드(GIFT, 법인카드 제외)

※ NH채움, 롯데 그린카드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https://www.green-card.co.kr>)을 확인하세요.



그린카드 주요 혜택

- | | | |
|--|--|--|
| <p>대중교통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이용 시
최대 2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p> | <p>공공부문 할인
전국 관광·문화·체육시설에서 그린카드 결제 시
입장료 할인</p> | <p>무공해차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그린카드 충전 시
충전요금 50%할인</p> |
| <p>친환경소비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등 구매 시
최대 1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p> | <p>에너지 절약
가정 내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절감 시
최대 10만원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p> | <p>도서 할인
그린카드로 도서(YES24, 서울책방)구매 시
5~1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p> |

* (적용대상) 환경표지인증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유기농), 저탄소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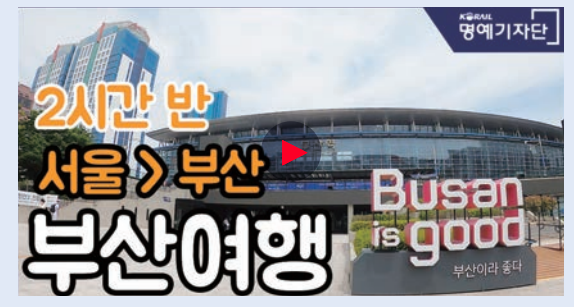
KORAIL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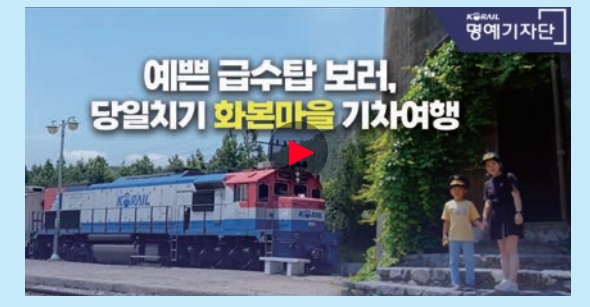
여러분은 철도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력비는? 선로에 소지품이 떨어진다면? 철도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양손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여름휴가를 맞아 고객님의 체력과 시간을 아껴드릴 '짐 배송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명예기자 추천 부산 여행, 부산역_부산역 근처에서 밀면 먹고, 해운대 블루라인 해변 열차 탑승까지! (한국철도 명예기자 @이얏 Next Travel Project)



당일치기 화본 기차 여행_가장 아름다운 역으로 꼽히는 경북 군위 화본역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한국철도 명예기자 @홍윤이네)



강릉역과 강릉우체국 지역 주민과 함께 숨 쉬는 강원도 강릉역과 강릉우체국을 소개합니다(ft. 동해산 타열차).



나랑 기차 탈래? 한국철도의 끼 넘치는 직원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한국철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TRAVEL NEWS

한 국 철 도 소 식

WWW.KORAIL.COM



소창체험관

옛 평화직물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강화 소창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실제 가동되는 소창 직조 기계, 소창으로 만든 전시물을 감상한다. 소창 스탬프 체험, 순무차 시음회, 한복 체험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올해 9월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소창 바느질 체험을 신설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 것.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동광직물은 한때 종업원 200여 명이 근무하며 강화군 직물 산업을 대표하던 기업이다. 폐업 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도시 재생 사업을 거쳐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소창 직조 기계를 공정 순서대로 배치한 전시실이 인상적이다. 전시 반대편에서는 강화도에 남은 직물 공장을 방문해 제작한 영상을 틀어 준다.



전등사

고구려 소수림왕 때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본래 이름은 진종사였으나, 고려 충렬왕 당시 정화공주가 옥등을 시주한 데서 이름을 고쳤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이곳에 보관하기도 했다. 유구한 역사와 고즈넉한 사찰의 맛을 만끽하고 싶은 이에게는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화개정원

교동도 중심부에 위치한 화개산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생겼다. 역사·문화·평화·추억·치유 등 테마 공원 다섯 곳과 암석원, 폭포까지 조성해 어디를 걸어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공원의 하이라이트는 스카이워크 전망대와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1.8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정원과 바다를 한눈에 담는다.

보드라운 휴식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여행



기념품판매장

강화읍 솔터우물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아 강화도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다. 대표 상품인 강화 소창 원단과 소창을 활용한 제품이 베스트셀러다. 이뿐 아니라 화문석 공예품, 순무차 등 강화 특산품과 각종 기념품을 판매한다. 기념품 덕에 더욱 오래 강화를 기억한다.



조양방직

한때 강화 최대 방직 공장이었으나, 기계가 멈추고 쓸쓸함이 감돌던 공간이 카페로 거듭났다. 카페 역할은 기본, 방대한 공간에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전시해 예술 감성까지 차오른다. 무쇠로 만든 세면대를 놓거나 불에 탄 배전판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독특한 조형물을 설치해 카메라를 들면 근사한 사진이 똑딱 나온다.

자료 제공 강화군청

인천 강화

서울에서 떠나는 강화 버스 투어

강화 버스 투어는 당일 여행과 1박 2일 여행 두 가지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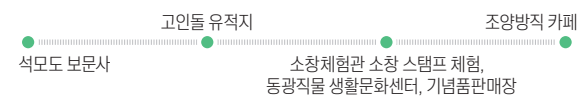
TOUR.01 강화나들이 마니산 치유의 숲 힐링 투어

해설사와 함께하는 원도심 도보 해설 투어와 인천 웰니스 여행지 마니산 치유의 숲을 둘러보고, 강화 특산품 사자발약쑥으로 족욕 체험도 한다. 강화에서 누리는 온전한 휴식으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가 녹는다.



TOUR.02 강화나들이 석모도 보문사 섬 투어

연륙교로 연결된 섬 안의 섬, 석모도와 보문사를 거닐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강화 고인돌 유적을 만난다. 강화 직물 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소창체험관과 조양방직 카페도 방문하는 투어다.



TOUR.03 강화 시티 투어

강화 여행의 시작인 갑곶돈대, 강화를 대표하는 풍물시장, 오랜 역사를 품은 전등사, 3대가 이어온 금풍양조장, 신미양요의 최대 격전지 광성보, 강화해협을 차례로 여행한다.



TOUR.04 강화·김포 구석구석 1박 2일

강화도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1.8킬로미터, 경기도 김포와는 1.4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평화를 되새기고 레트로 감성이 흐르는 강화 대룡시장을 둘러본다. 전국갈비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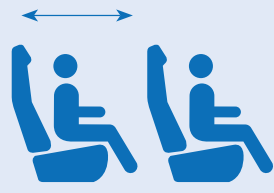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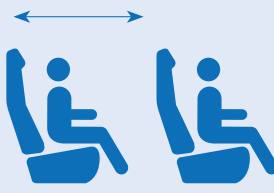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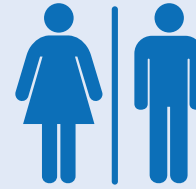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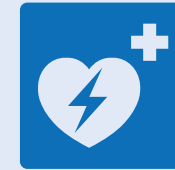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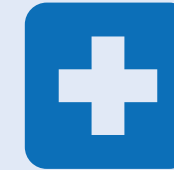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도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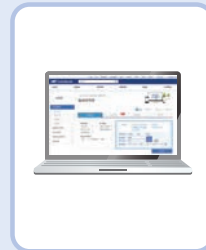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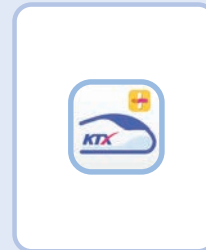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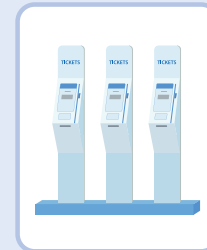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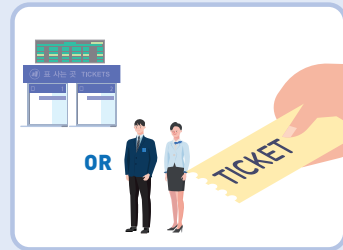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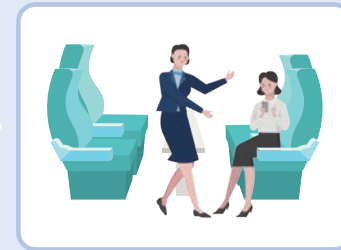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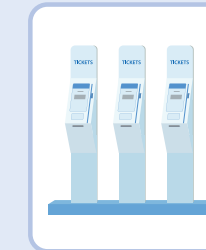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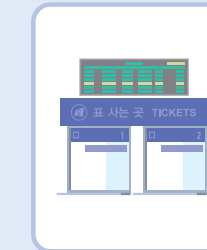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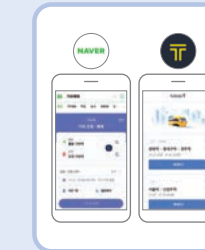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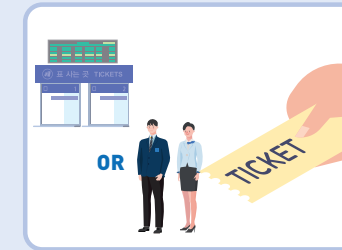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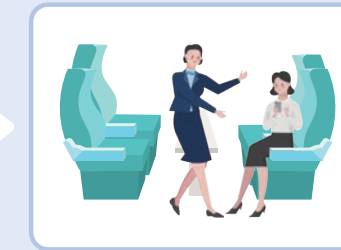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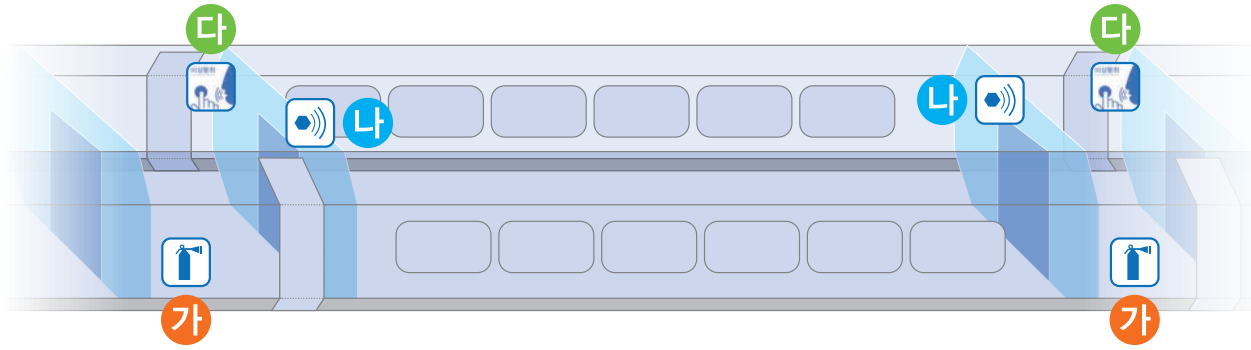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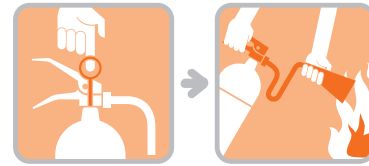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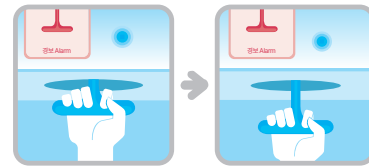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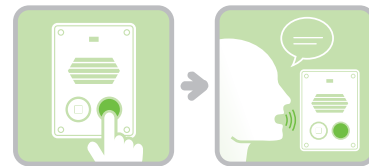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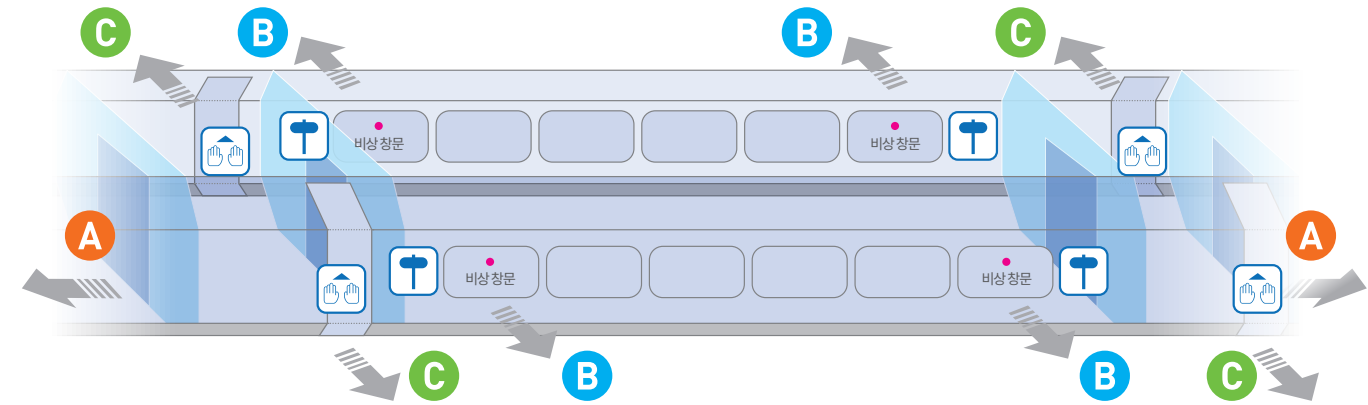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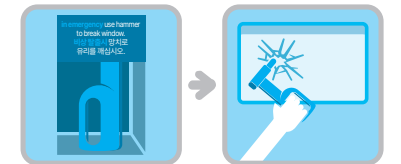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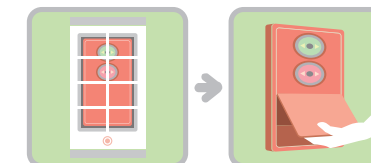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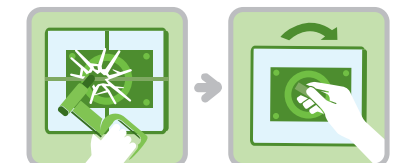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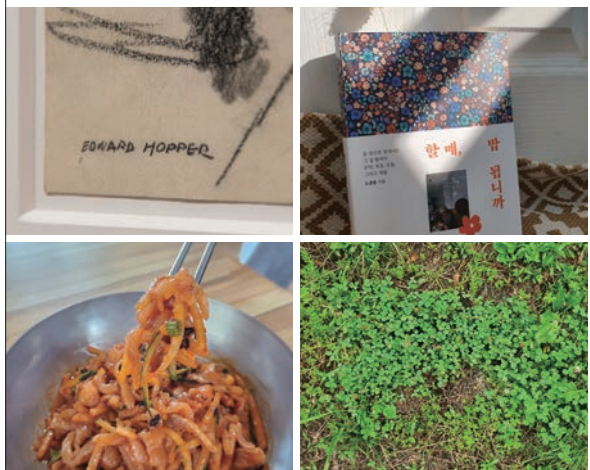
편집 후기

Epilogue



예술이라는 우주

몇 년 전 작은 갤러리에서 한 예비부부를 봤다. 예물을 생략하는 대신 집에 걸 그림을 고른다 했다. 아, 멋지다! 아직 구입은 못 해 봤지만 전시에는 진심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초대받은 것 같다. 이달엔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전을 취재했다. 유수경 학예연구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뒤 다시 혼자 천천히 관람했다. 작품이 너무×100 좋아서 5시간 동안 정신적 몸부림을 5만 번은 쳤다. 초기작에서는 불안하고 뜨거웠을 청춘을 떠올렸고, 호퍼만의 독특한 구도와 분위기를 음미하며 작가 눈에 비쳤을 풍경을 상상했다. 생애를 아우르는 전시라 작가의 일생과 동행한 기분이었다. 나, 안 나갈래! 국립중앙박물관, 소마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 곳곳에서 야심 찬 전시가 한창이다. 합쳐서 5만 차원쯤 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행복합니다. 김현정



포항이니까 다맛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맛집 탐방' 칼럼 진행을 맡을 때 신이 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KTX매거진> 7월호를 제작할 때 경북 포항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자님께 보여 드릴 멋진 사진을 위해 원피스를 구입해 입고 갔어요. 그리고 물회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이번엔 포항 물회와 1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회를 선호하지 않는데 '태화회집'의 담백한 물회는 끝내줬어요. '정국수'의 오공국수도요. 서울에 와서 그 진한 콩물 맛을 찾아 헤매기까지 했습니다. '본가꼬막짬뽕'의 짬뽕이 생각나 원고를 쓰다 침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르겠네요. 촬영이 계속 이어져서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었지만, '맛집 탐방'에 소개한 세 곳의 음식 맛은 제 머릿속에서 쉬이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혜림

할매를 사랑해요

이 지면에 할머니 얘기를 쓰는 게 벌써 세 번째다. 할머니가 그리 좋나 묻는다면, 어떻게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겠다. 심지어 '하모니(harmony)'와 비슷한 발음과 어감마저 곱디 곱다. '문화 돌보기' 기사에 할머니 콘텐츠를 다뤘다. 최근 1년 안에 나온 작품을 기준으로 하느라 미처 소개하지 못한 작품이 많다. 이 기사를 쓰는 데 영향을 미친 콘텐츠 중 하나는 2020년에 출간한 도서 <할매, 밥 됩니까>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편집팀 기자가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노중훈의 여행의 맛> DJ 노중훈 작가가 전국 할머니 식당과 거기 얽힌 사연을 정성껏 그려모아 집필한 책이다. 한동안 이 책을 아무 데나 펼쳐 읽으며 할머니 손맛을 상상하는 재미에 빠졌다. 이 여름, 할머니 식당과 할머니 콘텐츠를 실컷 음미하는 시간을 보낼 작정이다. 강은주

세잎클로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집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치악산의 풍경에 파묻힌 나를 발견했다. 취재차 원주에 닿은 날을 회상하면 이렇하다. 치악산 둘레길에 발을 내딛자마자 낮설어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다. 온통 초록. 마치 '키 컬러'를 지정해 칠한 것 같았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 싱그러움의 치악산을 감상했지만, 마음을 울린 건 뜻밖에도 소박한 클로버 무리다. 습관적으로 네 잎클로버부터 찾았다. 겹겹이 포개진 클로버 잎을 눈으로 헤아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굳이 행운을 찾을 필요가 있나. 흔한 세잎클로버 꽃말이 '행복'인데. 그 순간을 곱씹으며 행복하게 취재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음에,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이 지면을 빌려 취재에 도움을 주신 김영식 작가님을 비롯해 원주시의 수많은 관계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옥송이

Puzzle

85쪽 '퍼즐' 정답



안동 월영야행 문화재야행

2023 7. 29(토) ~ 30(일)
8. 4(금) ~ 6(일) 월영교 일대

